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데이빗 몰갠
로비 바렛트
데니스 페롯트
제임스 셸플
자넷 벌튼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인도자 지침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판권소유 © : 2003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혁한글 성경
, 1967 에서 했습니다.

초판 : 2003년 4월

BAPTISTWAY 운영위원회

주총회(BGCT) 행정책임자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교회 건강과 성장 고문 : H. 린 애크버거(H. Lynn Eckeberger)
성경공부 / 제자훈련 부장 : 데니스 패럿(Dennis Parrott)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한국어 집필위원회

단원 1, 1 - 4과, 인도자 지침서 번역
김대형 목사 - 제자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1, 1 - 4과 인도자 지침서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2, 5과 인도자 지침서 번역
김대형 목사 - 제자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2, 5과 인도자 지침서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2, 6 - 7과 인도자 지침서 번역 및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3, 8 - 13과 인도자 지침서 번역 및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한국어 집필 고문위원
로이스 로즈(Royce Rose), 신학교육 코디네이터, 텍사스 주총회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암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 인도자지침서

데이빗 몰겐. 이사야 성경공부의 모든 과에 있는 "성경 주해"의 저자이다. 하커 하이츠, 텍사스에 소재한 트리니티 침례교회의 섬기고 있다. 몰간 박사는 벨튼, 텍사스에 소재한 메리 하딘-베일러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뢰비 바렛트. 아마릴로, 텍사스에 소재한 아마릴로 제일 침례교회의 교육 사역자이며, 이사야 성경공부 1과에서 5과 까지에 있는 "교사들을 위한 제안"을 썼다.

데니스 폐롯트. 이사야서 6과에서 7과 까지의 "교사들을 위한 제안"을 썼다. 이분은 텍사스 주총회 내의 성경공부/제자훈련부서의 실무 담당자로 섬기고 있다.

제임스 셈플. 예레미야 성경공부의 모든 공과에 있는 "성경 주해"의 저자이다. 셈플 박사는 텍사스 주총회 내의 국내 선교부 위원장으로 은퇴했다.

자넷 벌튼. 예레미야 공부의 모든 공과에 있는 "교사들을 위한 제안"을 썼다. 그녀는 어스턴, 텍사스에 거주하며, 크리스챤 교육가, 집필가, 그리고 세미나 인도자로 널리 알려졌다.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들어가기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돋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3. 여러분은 *Baptist Standard* 나 인터넷에 제공된 많은 성경공부를 위한 도구들의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이다. *Baptist Standard* 를 구독하기 원하면 전화 214-630-4571로 연락하고,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원하면 baptistway@bgct.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다른 참석자들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5. 성경구절, 본문,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고,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 각과를 공부함으로 성경공부를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라.
6. 성경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구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단원 1. 이사야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제 1 과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고백함 (이사야 64:1-9)	5
제 2 과	하나님이 들려주신 기쁜 소식 (이사야 40:1-11)	11
제 3 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 (이사야 61장)	17
제 4 과	아기의 탄생을 축하함 (이사야 9:1-7)	22

단원 2. 이사야의 종의 노래들

제 5 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 (이사야 62장)	28
제 6 과	세상의 빛 (이사야 42:1-4; 49:1-6; 50:4-11)	34
제 7 과	그의 상심으로 치유 받음 (이사야 53:1-12)	42

단원 3.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제 8 과	어려운 소명 (예레미야 1:1-19)	48
제 9 과	잘못된 믿음 (예레미야 7:1-15)	54
제 10과	불충실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예레미야 22:1-15, 13-17; 23:9-18)	58
제 11 과	용감하게 반응하기 (예레미야 37:1-2, 6-7; 38:14-23)	63

단원 4.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제 12 과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때 (예레미야 32:1-15)	68
제 13 과	새 날이 됨 (예레미야 31:27-34)	72

[제 1 과]	<h1 style="margin: 0;">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함</h1> <p style="margin: 0;">(인도자 지침서)</p>
핵심본문 이사야 64:1-9	<p>학습 주제 진정한 크리스마스 축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고백하면서 시작한다.</p> <p>탐구 질문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진정 필요한가?</p> <p>교육 목표 내가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고백한다.</p>

성경주제

배경 이해

1-3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약속한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책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을 당시인 주전 8세기 후반부와 연관된다. 40장-66장은 150년 후의 열방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때의 상황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여 성전을 훼파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압송했던 때이다. 유랑민 시절 동안에는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후반부는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져야 한다. 40-55장에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56-66장은 주전 515년에 시작된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기 전인 주전 538년에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사야 40-66장은 억압받고 마음이 상한 포로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포로생활은 영원히 오래가지 않았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것이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의 귀환을 약속하셨다고 하더라도, 귀환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성들은 약 50년에서 70년 가까이 고향을 그리워했다. 체류하는 동안에는 낙관적인 기운마저도 힘이 빠졌던 때였다.

유다는 그 나라의 독립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고, 바벨론이 그들을 포위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의 자유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었다. 이들은 성전에서 신실하게 신성한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지 예배 행위보다 언약에 대한 복종을 더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강한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그들은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들과 도시와 성전이 멸망도록 외부의 침입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월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

것이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펴주신다는 그들의 확신에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결국 귀환하는 날이 다가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도시는 여전히 부서진 돌들로 가득했다. 사는 조건은 바벨론 보다 훨씬 못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들이 원하는 데로 바꾸지 않으셨기에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원기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으로 바뀌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처지가 여전히 황량한 상황이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다. 그들은 문제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 나무라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추궁할 길을 찾았다 –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맹세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들 마음 가운데서 고민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본문해석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함(64:1-4)

===== 64:1-2.

이스라엘 -- 여기서는 특별히 유다의 남왕국을 의미함--은 왜 하나님이 멀리 있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처럼 느꼈다(63:19). 여호와는 어디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구속과 구원에 대한 이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셨는가? 영어 번역에서 1절은 히브리 원본에는 63장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을 호소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감정 사이에 깊은 연결 고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맹세로 하나님에 계속 감동하고 있다는 싸인을 기다렸다. 결국, 그들은 확실하고, 과감하고, 틀림없는 방법으로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 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란 것이다. 거룩의 근본 의미는 구별 되다는 뜻이다. 거룩한 하나님은 백성들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유일하다.

64:1-2절에 있는 유다가 보는 시각의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 구별된 분이라 열방의 곤경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늘에서 굽어살피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를 보시기를 간청했다(63:15). 선지자는 낙심과 절망 상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임재의 징후를 구했다. 64:1절에, 선지자는 하나님에 굽어살필 뿐 아니라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기를 구했다. 선지자가 구했던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출현인, 신의 출현이었다.

흔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러한 출현은 구약성경에서는 당연히 두드러졌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며 본 구절에 반영되는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나타나셨던 시내 산 사건이었다 (출애굽기 19:16-18). 또 다른 신의 출현 장면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그들이 삼손의 부모가 될 것이라고 선포할 때였다(사사기 13:20). 기드온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났다 (삿 6:19-24). 성전에서 받은 이사야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만난 경우이었다(사 6:1-3).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행운을 얻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원컨대”)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도우신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격려가 될 것이다(64:1).

이사야는 하나님의 출현의 증표로 불을 언급했다(64:2). 불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힘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농부들은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고;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물을 태울 때 사용한다. 고대 사람들은 불의 힘과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배웠다.

===== 64:3-4.

하나님이 새로운 것과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필요에 응답했을 때인 옛날을 기억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칼망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제나 그들에 일에 먼저 나서서 처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를 예상치 못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진기한" 방법으로 일하셨다(64:3).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언급할 때도 같은 말을 사용했다(신명기 10:21). 다윗도 왕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슷한 방법으로 말했다.

64:4절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하나님과 겨룰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들의 적은 여호와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백성들의 감정 변화가 4절 맨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일에 하나님이 중재하시는 것을 요구할 때 상당히 조급해 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강요에 반응하시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사람이 백성들이 변하는 것을 엿보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앙망 하는 자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곤경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다.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준비되실 때 일하시고 그 어떤 외부 존재가 그분의 일을 조정하지 않을 때 일하신다는 것이다.

개인 책임을 인식함(64:5-7)

===== 64:5.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구원 하실지 궁금해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곤경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서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으로의 이스라엘의 변화는 완전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노하셨음을 기억했다. 다른 가능한 번역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반역을 고집했다.

이 구절의 취지는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많은 경고들은 이사야 처음부터 39장까지에 잘 나타나 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이

===== 64:6-7.

자신들의 행동을 인식했던 백성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심판 받을만하다.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이 그분께 가는 통로를 막는 장애물을 세웠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묘사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또는 예배 때와는 맞지 않는 의미로 사용된 의식적인 부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성과 죄 인정에 대한 범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의 행동이 "더러운 옷"이라고 인정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성모독 죄에서 깨끗이 되지 못하고 과멸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 쇠패하여 마르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 이런 잎사귀들은 바람에 훌날리는 쓸모 없고 가볍기만 한 것들이다. 잎사귀들에게는 알맹이가 없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무기력하게 쓸려 가는 알맹이 없는 잎사귀로 비교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백은 계속됐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무시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백성들은 예배도 무시했고 하나님을 불잡는데도 실패했다("불잡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이 했어야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그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시사한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몸부림을 외로이 감당해야 했다. 그들의 곤경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저항력을 부서뜨렸으며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분께 응답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되었다. 계속된 역경으로 그들의 고집이 꺾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함(64:8-9)

===== 64:8.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지금"이란 말은 기도의 결정적 순간인 본 장의 절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들의 전쟁과 구원이 그들은 만들고 태어나게 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백성들은 토기장이와 진흙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했다 (참조 예레미야 18:1-12; 사. 29:16; 30:14; 41:25).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백성들로 매우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유순한 백성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들의 고통과 불행을 끝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 64:9.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분노하지 마시며 그들의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빌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삶과의 연결

1. 미국 역사에서 잘 알려지고 기억해야 할 날들이 있는데 하나는 1941년 12월 7일에 있었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2001년 9월 11일 있었던 세계 무역 센터와 미국 국방성 테러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평안하고 안전했던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었다. 학생들에게 그 사건들을 회상하게 하고 위의 두 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한다. 다음 질문을 깊은 대화를 위한 안내자로 사용하라:

- 국가가 위기(12월 7과 9월 11일 사건과 같은)에 봉착할 때 당신은 무엇을 잃을 것 같은가?
(한가지는 안전문제)
- 우리가 잃은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오늘 공과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필요함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비극이 닥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켜 주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에 필요했다고 설명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과 함께 오는 국가적 위기들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필요에 민감했다.

학습 인도

3. 학습 공과에 있는 "역사적 배경"난의 내용을 사용하여 본문에 언급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라.

4. 강림이란 말을 칠판에 쓴다. 이사야 64:1-5b를 크게 읽는다. 특히 64:1절을 가리키고 강림이란 온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궁홀과 도움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다.

5. 64:1-5b에 찾은 명확한 표현에 주목하도록 한다. 칠판에 표현들 중 몇 개만 강림이란 말밑에 쓴다. 어떤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 불이 섟을 사르며
- 불이 물을 끓고
-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멀게 하고
-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한 두렵고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라.

6. 학생들이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있는 동안 이사야 64:5c-7절을 크게 읽는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라고 질문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 시간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두 구절들과 이사야 6:1-8절에 나온 이사야의 예배 사건과 비교하고 이사야가 회개한 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라고 질문한다 (이사야의 죄를 가져갔다)

7. 학생들에게 이사야 64:8-9절을 조용히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예레미야 18:1-6절을 찾아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구절을 읽게 한다. 똑같은 묘사가 각각의 구절에 사용된 것에 유념하라. 이사야 64:8-9절이 다음 두 가지 주제:(a)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관계; (b)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에 관하여 무어라 하는지 설명하라.

적용 격려

8. 학생들에게 다음 문장에 답하기를 권하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가정, 친구, 소유/물질, 돈, 다른 많은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

9. 우리 모두가 한 때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어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제안한 다음 내용을 학생들과 나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지만 뇌는 살 수 없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사치는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다.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아첨은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10. 그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전하라.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선하심을 축하해야함을 지적한다. 그분은 정말로 필요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도로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고백하도록 격려한다.

[제 2 과]	<h1>하나님이 들려주신 기쁜 소식</h1> <p>(인도자 지침서)</p>
핵심본문 이사야 40:1-11	<p>학습 주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을 받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다.</p> <p>탐구 질문 현재도 좋은 소식이 있는가?</p> <p>교육 목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묘사하고 내 삶으로 응답한다.</p>

성경주제

배경 이해

내 성경에는 이사야 39:8절과 40:1절 사이에는 약간의 공간만 남기고 떨어져 있는데, 내용의 배경은 과감하게 바뀌었다. 약 150년 정도가 흘렀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남왕국, 유다는 더 이상 앗수르의 심판과 징계에 접먹는 나라가 아니었다.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정복자가 무대에 등장했다. 하나님은 하늘이 내리는 심판 집행 방법으로 바벨론의 군대를 사용했다. 도성의 벽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성전은 약탈당했다. 일국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어떤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했고, 단지 가난한 백성들만 유다에 남았다.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실망만 남았다. 시편 137:1, 4-6절을 읽게 되면 그들의 고통과 상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채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치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집에서 700 마일(1126.3 km)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의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참으며 백성들이 포로생활로 거주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언자가 이사야 40장에 언급한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전하는

것이었다.

그 어떤 주제도 이사야 40-66장을 주관하고 있지 않다. 위로의 말씀은 열방을 섬기라는 부르심의 말씀과 합쳐졌다. 회복과 새로움 같은 주제는 다른 모양, 다른 강조와 접근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사야 40장은 남은 부분에 계속해서 일어날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희망과 위로였다. 예언자는 항상 희망의 말과 함께 선포를 마친다. 전에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아무리 위협적이었어도 그들의 최후의 말은 희망의 말이었다.

본문해석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부름(40:1-2)

===== 40:1-2.

이스라엘의 징계의-특별히 남왕국, 유다를 가리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값을 치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 유다의 운명이 곧 바뀐다. 예언자는 여호와가 곧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나라를 위로하라고 사람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천상 회의에 대한 묘사는 본문에서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다. 구약 성경은 이곳과 예언자가 천상 회의를 보았다는 이사야 6장에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했다. 읍기 저자는 천상 회의까지 밝혔다 (읍기 1:6-12; 2:1-6).

이사야 40장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고 자유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감동의 말을 제공하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을 달리했을 때 주는 격려와 후원 같은 것이다. 1절의 말씀은 포로들을 위로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심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위로함"은 여호와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로"란 단어의 사용은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음성이 선포됐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함께 한 언약(출애굽기 19:5-8; 레위기 26:12; 신명기 7:6; 14:2; 예레미야 7:23)과 아마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맨 연고로 징계 받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 음성은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정다이 말하며" 선포했다. 구약성경에서 "정다이"라고 번역된 말은 격려와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됐고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한 사랑하는 사람의 배려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참조 창 50:21; 롯기 2:13; 사무엘하 19:7; 호세아 14:2). "정다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으로란 의미다.

유다는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전쟁"은 이 구절에서는 이 용어에 대하여 특별히 좋은 이해는 아니다. 섬김의 시간 또는 속박의 기간이 더 낳을 것 같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수였고 바벨론에 있을 당시가 징계로 받은 노동의 형벌이었음을 암시했다. 동사 시제는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실제 해방이 아직 안 이루어졌을 지라도 자유를 얻는 것은 당연했다.

하나님의 출현을 준비하는 소명(40:3-5)

===== 40:3-4.

두 번째 음성은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출현을 예비하라고 울부짖고 있다. 그 음성은 듣고 있는 자들이 알아차릴 걸로 알았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선포했었지만 (겔 11:22-23), 하나님의 그분의 사역을 되돌린다고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그분의 길을 평坦케 하는 것도 포함됐다. "길을 준비하라"가 "길을 예비하라"보다 더 나은 표현이다 (NIV, NRSV) 왜냐하면 그 단어가 장애물을 없앨 필요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거친 길을 고르게 하는 것이 왕의 출현을 위해 가하다. 돌아오심의 의미는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들이는 나라에 귀국하는 것을 암시한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그리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坦케 되며 협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평탄이란 "광야" 또는 사막을 가로지른다는 것이다. 고대 시대 때의 길들은 일반적으로 지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막을 우회했다. "광야"란 용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한 광야를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시내 사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가나안에 새롭게 정착하도록 했다. 광야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새 구속은 권능자의 역사를 이루 말할 수 없다.

===== 40:5.

이스라엘 포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모든 인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일을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셨다.

예언자 회의주의(40:6-8)

===== 40:6-7.

이번에는 확인되지 않은 음성으로 예언자에게 말했다. 그 음성은 단지, "외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사자를 내세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예언자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과 함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권유를 받았다.

예언자는 마치 정신 없는 백성들이 대답할 것 같은 모습으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라고 대답했다. 그는 천상 회의를 목격했으며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혼란스러웠고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은 임박한 자유를 선포했다. 그러나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지난날 불신앙을 상기시켰을 때 그는 자유가 가능할지 의심했다. 그는 열방을 금방 시들을 풀과 꽃으로 비유했다.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무관심했다. "사랑스러움"이란 예언자의 말은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언급한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다. "사랑스러움" 대신에 이 말을 불변하다, 오래 견디다, 그리고 확고하다란 뜻을 번역할 수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포로생활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 40:8.

8절은 예언자의 냉소적인 질문에 대한 하늘 사자의 응답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할 수 없는 모습과의 비교를 주목하라. 그들은 급히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스라엘의 구속과 구원은 백성들의 노력이나 열방의 타고난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사자는 예언자에게 이스라엘의 변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력히 권했다. "서리라"라는 말은 참다 또는 상속하다란 뜻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결정하셨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음을 확신했다

예언자의 위로의 말씀(40:9-11)

===== 40:9.

예언자는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 시키셨다는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과 시온이 선포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다. 예언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말했다. 그는 마치 야경꾼이 하듯이 백성들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갈 것을 지시했다. 그들을 멸망케 할 적들의 접근에 관하여 열방에게 경고하는 대신에 시온이 여호와의 강림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고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

===== 40:10-11.

이스라엘이 포로생활 동안에 희망을 갖지 못할 정도로 바벨론은 위대하고 강했다. 이스라엘은 박해자들에게 저항할 아무런 힘도 없었고 그럴 자유도 없었다. 상황 회복의 불가능은 절망과 자포자기로 이어졌다. 그들이 포로생활로 남아있었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은 (1)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거나 (2)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의심했었다.

예언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과 함께 오신다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대응했다.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들과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능력의 여호와는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능력과 함께"란 말은 강한 자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능력의 여호와로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의 힘은 통치하는 군대를 상징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탈출과 관련이 있었다(신 4:34; 참조 사 59:16; 62:8).

전능한 하나님의 출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신의 능력을 보여주어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승리의 여호와는 정복자의 전리품도 가져올 것이다. 승리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승리의 하나님의 포로로 인정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후 예언자는 목자라는 두 번째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했다. 목자란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이다. 가장 잘 표현된 자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라고 한 시편 23:1절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사악한 통치자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인" "한 의로운 가지"로 비유했다(예레미야 23:1-5).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만 생각하고 양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유다의 왕들(목자들)을 책망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에스겔 34:23).

[교사를 위한 제안들]

수업계획

삶과의 연결

1. “기쁜 소식”이란 말을 칠판에 쓴다. 학생들에게 최근에 들은 기쁜 소식을 나누도록 한다. 학생들이 토의할 수 있는 예를 얘기해도 되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소식, 새 직장, 아무 이상이 없다는 강진단 결과, 졸업, 등등), 아니면 당신이 받은 좋은 소식을 먼저 나누면서 토의가 진행되도록 한다.
2. 성경에서 기쁜 소식을 받은 예가 있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참조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0). 오늘 공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쁜 소식에 중점을 두었다고 얘기한다.

학습 인도

3. 이사야 40:1-5절을 학생들에게 크게 읽도록 한다. 학습 공과에 있는 하나님에 예언자로 위로하게 한 두개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참조 61:2)에 있는 설명에 주목하게 한다. 당신은 왜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다.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들의 포로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그들은 사막의 황량함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4. 학생들에게 이사야 40:6-8절을 읽게 한다. 8절을 크게 세 번 읽는다.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마르고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고 잠시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5. 질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들은 후에 이사야 40:9-10절을 크게 읽는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토의하게 한다:
 -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 하는가?
 -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6. 학생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구절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얘기 한 후 이사야 40:11절을 읽게 한다. 반응을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양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지적한다.

적용 격려

7. 본문 공과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정리한다. 그런 후 학생들에게 다음 구절을 읽게 한다: 누가복음 2:10-11; 마태복음 1:21; 누가복음 2:16-18. 이 구절들에 언급된 기쁜 소식을 정리한다.

8.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 소식을 듣고, 믿고, 나누자.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도전한다.

<p>[제 3 과]</p> <p>핵심본문 이사야 61장</p>	<h2>하나님의 축복을 누림</h2> <p>(인도자 지침서)</p>
<p>학습 주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다.</p> <p>탐구 질문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축복 하셨는가?</p> <p>교육 목표 이사야가 언급한 축복을 요약하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받은 축복의 방법들을 열거하라.</p>	

성경주제

배경 이해

2과에서 공부한 이사야 40장과 함께, 이사야 61:1-3절은 예언자가 포로들에게 예언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이 백성들에게 임하신 것을 선포하도록 예언자를 세우셨다.

이 부르심은 이사야에 있는 네 개의 종에 대한 시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42:1-4; 49:1-6; 50:4-11; 52:13-53:12). 이 시들은 6과와 7과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부르심은 먼저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온 후의 상황을 말했던 예언자에게 지시되었다. 어떤 구약성서 해석가들은 그 시를 한 예언자에게만이 아닌 모든 열방의 역할로 보고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도록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외인은 서서 양떼를 칠 것이요(61:5),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위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61:6). 세상에 대한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수행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명예와 위엄을 회복하실 것이다.

61장은 예언자가 찬송의 노래를 함으로 결론짓는다. 하나님이 그를 당황케 한 약속을 인식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셨다. 열방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증거 할 것이다.

본문해석

자유에 대한 선포(61:1-3)

===== 61:1.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서 그들을 높일 것을 돌아온 포로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으로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특별한 임무를 이루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었다(브살렐, 출애굽기 31:1-3; 기드온, 사사기 6:34). 이 부르심은 또한 창조를 암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과 같은 이스라엘의 혼돈 후에 질서와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창세기 1:2).

예언자는 하나님의 신이 소망과 자유의 말씀을 공식화하기 위해 자신을 세우셨다고 이해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믿었다. 아마도 상징적이기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열방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할 권한을 그에게 완전히 일임했음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61:1)이란 말은 기름부음과 신의 은사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종의 임무를 묘사한 이 세가 문장은: (1)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2)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리고 (3)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61:1-2). 이 세 가지 임무의 결합은 하나님의 구속 사명에 대한 훌륭한 묘사를 담고 있다. 각각의 임무는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시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도록 회복하실 것이다.

다음 표현은 예언자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섬겼다. "고친다"는 말은 상처 입은 자를 고침 받도록 장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루살렘에 재정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예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묶여 있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과 소망도 없이 스스로를 속박했다. 그들은 낙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은 낙관적인 시야를 꺾어 놓았다.

예언자의 임무의 마지막 관점은 "포로 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다(61:1). 이 임무는 희년의 개념을 가리킨다(참조 래위기 25장). 하나님은 모든 히브리 민족을 위한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희년을 제정했다. 하나님은 열방에게 50년마다 희년을 경축할 것을 명령했다. 이전까지 팔렸던 땅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주인은 노예를 풀어주었다. 땅은 경작하지 않은 채로 두고, 1년을 쉬었다. 그러나 이 희년을 지켰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희년의 개념과 함께 예언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유를 제안하신 것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두움에서 이끌어 내셨다. 감옥 문을 내 던져 열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

===== 61:2-3.

예언자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허락을 선포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61:2)는 "여호와의 사랑의 해"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신원"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그들의 적들을 대항하는 것과 연관된다. 백성들이 양값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지 적들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셨다(61:20).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은 이사야 40-66장 까지의 중심 주제이다. 애통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세 가지로 묘사한다.

첫째,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에 "재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다(61:3). 재는 슬픔을 의미하고 화관은 축하를 의미한다. "화관"은 경축 때 쓰는 아름다운 관인데 마치 결혼식 때 신부가 머리에 두른 것과 같다(사 61:10).

둘째,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주인은 종종 자신들의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방문객의 이마에 문대며 기쁨을 표현했다(참조 시편 23:5; 누가복음 7:46).

셋째, 하나님은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이기신다. 옷은 길고 헐거운 걸옷 또는 망토이다. 하나님은 화려함과 우아함으로 유대인들을 옷 입히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일컬어 "의의 나무"라 하셨다. 오크 나무는 강하고 견고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애물과 도시 재건을 이기기 위해 강함과 탄력을 찾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 모든 열방으로부터의 명예의 회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높임의 약속(61:4-7)

===== 61:4.

백성들은 폐허된 건물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유대인은 포로생활에서 망가진 도시의 성전, 벽, 집들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 그들이 포로 되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재건되지 못했다. 예언자는 과거의 폐허된 모습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했다. 그 어떤 상황도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 새로운 성벽,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

===== 61:5-6.

이스라엘의 옛 적들과 외인들은 미미한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재건하고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다. 백성들의 십일조와 제물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연명하도록 하나님의 지시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위해 들판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됐다. 그 대신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노동자들 사이의 중재자로 섬기면서 그들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다른 나라가 부흥한 나라에게 곡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 나라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과 언약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출애굽기 19:6).

===== 61:7.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맹세에는 포로들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 비록 번역하기 어렵지만, 이 구절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약속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실 것처럼 보였지만("너희가 수치 대신에," "너희가 굴욕 대신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존중했다. "두 배"라는 의미는 유산을 나누는 것에 대한 개념에서 온 것이다.

장자는 특권과 영예를 나타내는 두 배를 얻었다.

신실하신 하나님(61:8-9)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했지만, 그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성실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됐다(참조 창세기 17:7). 시내 산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확인하셨다(참조 출 2:24; 19:5-6). 하나님은 다윗의 집까지 이어갔다(사무엘하 23:5; 사 53:3). 하나님은 포로가 되기 전 수 많은 세월 동안 불충한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셨다(에스겔 16:60; 37:26).

"공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사 61:8). 하나님께 옳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약탈과 죄악"을 경멸하셨다(61:3, NIV). "후손" 그리고 "자손"과 관련된 말은 아브라함의 소명을 암시한 것이다(61:9; 참조 창 12:2). 하나님은 족장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하셨으며(창 12:7) 이 사람의 자손을 통해 이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창 12:3).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드림(61:10-11)

===== 61:10.

예언자는 하나님에 종의 삶 속에서 열방을 회복하기 일하신 것을 기뻐했다. 그는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반복해서 나는 기뻐하리, 기뻐하리 라며 노래를 불렀다. 말을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옷으로 예언자를 입히셨다. 하나님은 결혼식 때 사용하는 장식물로 예언자를 치장했다. 예언자는 자신과 열방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축하했다.

===== 61:11.

예언자는 땅이 짹을 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쳤다. 동산이 거기 뿐인 것을 움돋게 한다는 것은 창세기 2:8-14절에 나온 하나님의 에덴 창조를 암시하는 것이다. 아마도 예언자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독자들로 모든 창조물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기를 원했다. 창조는 새 낙원에서 절정을 이룰 것이다(계시록 22:1-2).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에게 그들이 받은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을 생각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그 중요성을 나눌 자원자들 초청한다.
2. 야고보서 1:17절을 크게 읽는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학습인도

3. 학생들에게 성경적 자료를 제공하도록 학습 공과에 있는 성경 구절의 요약을 사용하라. 다음과 같이 칠판에 요약을 쓰길 원할 것이다:

-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사자(61:1-3).
-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61:4-9)
- 감사의 찬송(61:10-11).

4. 참석한 학생에게 이사야 61:1-3절을 크게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답하라고 격려한다:

- 예언자는 이 구절들에서 무엇을 언급했는가? (그의 사명)
- 예언자의 행동들을 무엇들이었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 자유 선포, 등등)
- 3절에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재 대신 화관,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 NIV;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나무"라고 불렀다.)

5. 이사야 61:4-9절을 크게 읽는다. 학습 공과 안내서에 있는 자료와 와 교사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제"를 사용하여 간단한 강의를 하라. 이 본문과 병행구절인 예레미야 29:10-14절을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라.

- 61:4 -- "재건"
61:5 -- "외인" 과 "이방인"
61:6 -- "제사장들" 과 "봉사자들"
61:7 -- "두 배"
61:8 -- "공의"
61:9 -- "자손들"

6. 참여한 학생에게 이사야 61:10-11절을 크게 읽게 한다. 질문: 우리가 여호와께 축복하신 사람들인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 11절에는 예언자가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라.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했던 시간을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라.

적용 격려

8. 학생들에게 시편 100편을 펴라고 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듯이 크게 읽게 한다.

9.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의 일에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라. 학생들에게 성경 책 창세기 12:2절을 펴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참석자들에게 창세기 22:17절을 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셨는가를 읽게 한다.

11.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에 감사하며 기도로 마친다.

[제 4 과]	아기의 탄생을 축하함 (인도자 지침서)
핵심본문 이사야 9:1-7	<p>학습 주제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의미함을 아는 것이다.</p> <p>탐구 질문 한 작은 아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p> <p>교육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p>

성경주제

배경 이해

이사야 9:1-7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신 왕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이사야7:14). 아하스(주전735-715 통치)는 요란한 세상 가운데 유다의 젊은 왕이었다. 앗수르는 팔레스틴 대부분의 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베가)과 수리아 왕(르신)은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아하스에게 그들의 동맹에 합류할 것을 강요했다. 그가 거절했을 때, 그들은 유다를 공격해서 아하스를 몰아내고 그들의 협상에 동조하는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쳐들어왔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사야선지자의 충고를 거절하고,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유다와 함께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 동맹을 더 신뢰하였던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표로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사야 7:14) 그리고 이 약속한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아하스를 대항하던 왕들은 폐하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서 9장은 앗수르가 멸망하고 더 좋은 때가 이르리라고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을 영광스러운 길로 장래에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북 왕국과 남 왕국의 통일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믿음처럼 왕국을 통일하고, 적을 물리치시며, 약속했던 영광을 성취할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실 것이다.

본문해석

절망의 성명서(9:1) -* 한글 성경은 8:22절임

이 구절은 이전 장의 고통을 현재 장까지 이어가는 산문체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1절은 실제적으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8장 마지막 절에 들어있다. 영광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대치되었다. 스물론과 납달리 땅이 “모욕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땅은 빈번한 침략과 지배를 당해왔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앗수르와 이스라엘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했고, 따라서,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다.

“옛적에”는 주전 732년 앗수르의 왕이었던 티그랏 벨레셀에 의한 정복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후에”는 미래를 나타내는데, 아마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는 메시야시대를 가리킬 것이다. 이 구절은 아마도 옛적은 멸시를 당한 땅으로, 후에는 그것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던 단어이다. 이런 땅들의 회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마태는 본 구절을 가버나움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다.(마 4:15-16)

빛과 즐거움의 선포(9:2-3)

감사의 시로 되어있는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왕과 메시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비록, 이 구절이 아기의 출생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들이 새로운 왕의 등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계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이것에 관해서는 6절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 9:2.

이 찬송은 빛이 암흑의 땅에 드리워져있는 어두움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구절에 대한 영어 성경번역들이 저마다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NASB는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고, NIV, NRSV, 와 RSV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어성경은 이미 행동이 완결되어짐을 나타내는 완료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예언적인 상황에서는, 아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도라도, 이미 일어났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던 일들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흑암” 또는 “짙은 그늘” 혼돈과 상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똑같은 말이 창세기 1:2, 4-5에 나타난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사역이 바로 어두움과 혼돈으로부터 빛을 불러내는 것이었다. 스물론과 납달리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 세상에 막 새로운 무엇인가를 불러 일으키시려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하시는 일은 새로운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사야는 또한 “빛”이라는 단어를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관련지어 사용하고 있다. “빛”은 위엄과 광채를 나타낸다. 오늘날 우리는 빛에 익숙해있다. 스위치를 켜면, 빛이 환하게 들어온다. 반면, 옛날에는 빛은 최고로 밝아봐야 희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태양 빛에 비하면 초나 등잔불은 너무 빈약한 것들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단지 그들은 상상에 의존해야만 했었다.

===== 9:3.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새로운 일을 찬양할 것이다. 자유가 북방에서부터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증거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기쁨을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와있다. (1) 추수의 즐거움이고, (2)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다. 현대기술로 고대의 추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더 좋은 기술의 개발로 몇 달, 또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몇 년까지도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은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리에도 운송되어지고 있다. 가뭄에 짜들린 사람들도 대량을 넘어 전해지는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고대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다. 풍년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흉년은 배고픔 또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풍년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다음추수기전에 음식이 바닥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풍년을 허락한 신들에게 감사하고 추수제를 드렸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감사의 선물을 예배장소로 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다. (출23:16, 19; 램23:9-21, 르10:34-39)

두 번째 묘사는 적을 무찌르고 남겨진 전리품을 승리의 보상으로 받는 승전병들의 모습이다.(참조 창14:24). 이사야는 병사들이 그들의 적군이 남기고 간 것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전사들은 기뻐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승리이고, 두 번째는 보상이다.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에서 얻어지는 축복두가지 모두를 받고 감사하게될 것이다.

압제로부터의 자유(9:4)

4절에서 6절은 모두 영어성경에서는 “for”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이다. 4절은 압제자에게 놀란 짐을 벗겨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다를 지배하던 이방 세력들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왕에게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삼하 7:8-16). 세 가지 묘사-명예, 회초리, 막대기 -는 구원의 범위를 강조하고 있다.

고대 농부들은 “명예”가 상징하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명예는 가축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가축의 어깨에 나란히 걸쳐두었던 나무로 만든 막대 같은 것이었다. 농경문화에서 명예의 속박은 다른 사람의 속박아래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놀라운 비유가 되었다 (왕상 12:4; 렘 27:8). 명예를 진 짐승들은 주인의 회초리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 “막대기”는 전쟁무기의 하나로써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명예를 부수고, 회초리를 부려뜨리시며,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미디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초기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구속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자료를 제공한다. 사사시대동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징벌하셨다.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다. 하늘이 압제자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시면, 백성들은 죄를 짓고, 다시 이방나라의 압제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은 또다시 백성들을 구원시키셨다.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과 미디안전투의 승리사이의 가능한 공통점을 기록해 보라. 적군은 둘 다 엄청난 숫자에 강력한 군사들이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중표를 보여주셨다.(삿6:17-22, 36-40; 사7:11-14)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어있다. 다른 가능한 비교는 승리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단지 300명의 장정이 미디안을 쳐부수었던 것이다.(삿

7:22)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사 7:14)

전쟁에서의 승리(9:5)

전쟁은 이과에서 언급된 그 시대가 도래하면 끝이 날 것이다. 군사들은 전쟁의 무기와 장비들을 불태울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쟁의 도구들은 평화를 태우는 연료가 될 것이다.(참조 사2:2-5; 미4:1-4).

우리에게 보낸 아기(9:6)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다 라는 것은 불신앙의 아하스왕을 계승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살았던 유다의 왕은 아무도 없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왕이 왕위에 등극할 때마다 기대는 부풀어 있었다.

이 구절에서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름들은 미래의 왕에 대한 탄생선포나 당대의 새로운 왕의 대관식에 주어질 명칭들, 두 가지 모두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 이름들은 이상적인 왕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왕명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이 왕위에 등극을 할 때는 왕의 아들로써 묘사되었다.(참조 시편2:7)

이사야 9:6절의 첫 번째 단락은 “아이” 와 “아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야는 통치권 위임이나 권력의 상징을 나타내는 정부에 대해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아이는 “기묘자, 모사”라고 불리는데, 문자적으로 “놀라운 상담자” 또는 “훌륭한 상담자”라는 뜻이다. 이 명칭은 왕의 행정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들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영도할 것이다. 이 이름 속에는 단지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는 능력 뿐 아니라, 그러한 계획을 실천해나가는 능력이 동시에 내포되어져있다.

이 아이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받았다. 왕은 그의 적군들을 통치할 힘있는 장수가 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영웅이 될 것이다.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한 아하스왕은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동맹의 협상을 맺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는 적군들과 동맹을 맺어 나라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이 아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선지자 이사야는 왕의 통치기간을 강조하고 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것은 영원히 될 것이다.(삼하 7:16) 아하스와 같이 악한 왕들은 때때로 다윗 왕조가 정말 영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선지자는 강력하게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명칭은 또한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려는 왕의 부성애를 담고 있다.

왕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북왕국, 사마리아”는 이사야의 사역기간동안 폐허가 되었다. 남왕국 유다는 정기적인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 새로운 왕은 백성들에게 평화의 시절을 가져다줄 것이다. 사람들과 창조물 사이의 조화는 근심과 반목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히브리말로 셀롬인 “평강”은 전쟁이 끝이 났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만족과 깨끗한 삶을 가리킨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모든 사람과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원래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신(9:7)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왕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그의 기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왕은 공평과 정의로 영존할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자금 이후 영원토록”) 여기의 이 새로운 왕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구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삼하7:16)

그러면, 이 선지자에 의해 묘사되어진 이 왕은 과연 누구인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와 동일인물로 본다. 실제로, 유다의 번영이 히스기야의 통치기간에 이루어졌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의 말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완전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 땅의 왕은 일시적으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이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열심”이 자기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의를 말해준다. 하나님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성탄절의 상업화로 인해, 때때로 우리는 2000년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를 축하하는 것을 잊어버리게됨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라. 학생들에게 언제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아봤는지를 기억하게 해 보라. 자기 팔에 안긴 연약한 아기를 바라볼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서로 나누어 보게 하라. 아마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섰고 아기 예수를 안아 보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다고 말해 주라.

2. 오늘 공부를 위한 성경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라는 것을 말해 주라. 참가자들에게 다음 문장을 완성시킬 것을 요구하라.

- 흑암에 다니는 백성들이...
-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셨으니...
- 그 나라는....
- 그를라고 하라.

학습 인도

3. 학습안내에 나와있는 “역사적 배경”과 “교수안내”에 나와있는 “상황이해”의 정보를 이용해, 이 역사적 배경의 간단한 강의와 핵심본문을 가르쳐주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 앗수르 사이의 비생산적인 관계를 기록하라.

4. 학생들에게 이사야 9:1-2절을 읽게 하고 다음 질문을 토의하라.
-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 흑암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누가 큰 빛인가?
 - 이 빛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다르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5. 학생 중 한 명에게 이사야 9:3-5절을 읽게 하고 행동들을 주목하라.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엇을 바꾸어 놓으실 것인가? 학습안내 와 교수안내 안에 있는 “성경주제”로부터 이 구절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라.
6.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라.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살고있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한번 적어보게 하라, 예를 들면 전자렌지의 발견, 컴퓨터의 사용, 의상의 변화든. 학생들이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변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도전하라. 우리가 인간의 발명품과 시대의 흐름을 통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와 비교할 때는 영속성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라.
7. 학생들에게 이사야 9:6-7절을 읽도록 하라. 학생들에게 다음질문에 답하도록 요청하라.
- 그 아기가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 그가 불렸던 다른 이름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통치하실 것인가?
 - 그의 나라를 무엇이라 특징지을 수 있는가?
8. 학습안내서 안에 있는 “메시야”라는 이름의 짧은 기사를 펴기를 요청하라. 한 학생에게 큰 소리로 그것을 읽게 하라. 그 아이, 즉 약속되어진 자, 메시야, 는 이미 도착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적용 격려

9. 학생 중 한 명에게 누가의 성탄절 이야기를 크게 읽도록 시켜라.(눅2:1-20)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모두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해라(먼저, 읽던 학생이 20절을 읽고 난 후에, 왜냐하면 저마다 자른 번역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동들이 아기의 탄생에 대해 나타냈던 그들의 궁극적인 반응에 대한 단서가 있는 구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라. 목동들은 아기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가르치리. 우리도 또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야한다. 학생 중 자원자를 불러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으로 인해 달라진 그의 삶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도록 하라.
10. 다가오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한다.

[제 5 과] 핵심본문 이사야 62장	<h2 style="margin: 0;">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h2> <p style="margin: 0;">(인도자 지침서)</p>
<p>학습 주제 진정한 성탄의 축하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p> <p>탐구 질문 미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p> <p>교육 목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p>	

성경주제

배경 이해

이사야 62장은 60장부터 시작되는 큰 단원의 한 부분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백성을 구원하실 큰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아주 가까이 왔다. 이사야는 거룩한 도시의 모습에 대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땅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완수하실 것은 확실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는 지금 예루살렘의 현재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직 닥쳐오지 않았다. 주전 539년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이래로 시간은 점점 지연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의 진전도 없는 상태이다. 이 사람들의 입술에는 이런 무언의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니겠지?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걸까? 마침내, 선지자 이사야는 그냥 뒤로 물러나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외쳤다.

이사야 선지자는 62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을 깨뜨려버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외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는 혼미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새 이름과 그로 인한 새로운 그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이 회복의 사건이 이루어 질 것임을 확인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의 구원이 연기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했었다.

본문해석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기도(62:1-2)

선지자는 간접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책임을 따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는 평화를 갈구하는 약속이 좌절되어진 공동체 안에서 살았고 전했으며 그들을 목양 했었다. 그는 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는 백성들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 관점은 이 구절들에서 화자는 선지자라고 보는 것인 반면, 몇몇 학자들은 1절은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나머지 2-5절은 선지자의 말이라고 보고 있다. 나는 1-5절 모두가 선지자의 말이라고 여기는 주석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전 설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왔다.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외칠 것을 맹세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자기도 침묵하고 있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어떤 일이 백성들에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고자 했었다. 선지자는 자기의 명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백성들과 그들의 태도와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의어로써 중요 도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의 지역들도 함께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재하고자했던 구약성경의 인물들의 긴 반열에 합세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 것을 중재했었다.(참조 출32:30-32), 사무엘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압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뢰었다.(참조 삼상12:23)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대표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민족 모두에게 구원이 임할 때까지 외쳤다. 이 “공의”는 세상을 비출 것이다. 그것은 “횃불같이” 빛날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횃불같이 빛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불빛은 어두운 밤에는 멀리서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것이다.

선지자는 2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열방의 백성이 모두 이스라엘백성 스스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열방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 생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알 것이며, 열왕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다. 구약성경에 자주 나타난 것처럼, 나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함은 새로운 방법으로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새로운 이름은 대부분 새로운 성격을 나타 내어준다. 하나님은 아브람(높으신 아버지)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으로 바꾸어 주셨다.(참조 창17:5)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속이는 자라는 뜻에서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다(창35:10).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에게 당신께서 도시의 이름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사1:26)로 바꾸실 것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포로생활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배웠다. 이스라엘은 변화된 백성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결혼예식(62:3-5)

이사야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의 관심을 사람들에게로 옮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남편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다시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 62:3.

하나님은 유다가 오늘날에는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면류관” 그리고, “왕관”(또는 터번)으로 부르고 있다. 의미상으로 동일한 이 두 가지 표현은 진열되어지는 방식이 독특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머리에 쓰는 왕관을 주시지 않았다. 대신에,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이미지의 배경은 멀리서 바라볼 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왕관을 닮은 모습에서 나온 것이다.

===== 62:4-5.

선지자는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새로워진 관계를 남편을 위한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포로생활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셨다고 믿어왔다. “벼름받은”과 “황폐한”은 두 가지 실제적인 이름들 - ”아주바“와”쉐마나“ - 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이 단어들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벼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결혼에서 오는 친밀감의 회복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름을 예루살렘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은 헵시바(네 속에 있는 나의 기쁨)와 뿔라(결혼하다)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의 이미지는 사용했었다. 호세아는 그의 결혼과 가족의 문제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연관을 지었다(참조 호세아1). 그는 그의 아이들의 이름을 로루암미(궁흉을 입지 못한 자), 로암미(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었다. 이 이름들은 그는 그들의 아비가 아니라는 호세아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비난하고 있다(참조 말2:11)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날에는 결혼과 기쁨이 불 신앙과 좌절을 대신할 것이다. 결혼은 축제와 향연의 기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줄 것이다.

회복되어진 예루살렘(62:6-9)

===== 62:6-7.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선지자의 중재의 노력이 이스라엘의 시대에 이루어지던 두 가지 일반적인 역할로 설명되어져있다. 각 도시들은 적의 침입을 살피기 위해 성벽 위나 도시주변의 언덕에 과수군을 세웠다. 이 과수군들은 적이 기습을 해서 점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항상 적극적인 열심으로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했었다.

“과수군”的 다른 역할은 고대 왕들의 공식적인 직무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이 사람은 “궁중서기”로써 알려져 있다. 그는 왕의 공식적인 직무를 기록했다. 그의 임무는 왕이 약속했던 것을 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아하스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아니한 것을 왕에게 알 게하고 동시에 이 사건의 기록을 왕에게 읽어주던 사람이 바로 이런

궁중서기의 역할이었다.(예6:1-3). 이 파수꾼은 천사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선지자가 “파수꾼”을 비유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다. 이 “파수꾼”은 온 세계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그들 가운데 존재할 것이다.

===== 62:8-9.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당신의 자녀들의 음식을 탈취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강한 팔”은 힘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염려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행동하실 데다. 그들은 그들이 생산한 음식의 대부분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일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그들은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여기, 재건되어진 성전)에 모일 것이다(신 14:22-27).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로워질 때 축제를 벌인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유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자발적인 감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진 자유로 인해 생겨날 것이다.

구원 받은 예루살렘(62:10-12)

===== 62:10-11.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영적인 회복은 완성되지 않았다. 선지자는 그들의 귀환을 위한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필요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포로자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신 이사야40:3-4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최종적인 회복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은 자기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마태는 마지막 일주일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져온 구원과 이사야 62:11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인용하고 있다 (마21:5).

===== 62:12.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또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변화된 이름은 네 가지로 나뉜다. (1)“거룩한 백성” (2)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3) “찾은바 된 자” (4)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홀로 내어 맡겨짐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한 거룩하신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구속되다”라는 것은 “구조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찾은 바 된 자”라는 것은 귀하고 둘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버리지 아니한 성읍”은 우리에게 다시 결혼과 친밀감을 기억나게 해준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진 않는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 어른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기간동안 우리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다는 것을 언급하라. 비록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공산주의의 붕괴,

소련의 분단, 걸프전쟁, 그리고 계속적인 세계 속의 분쟁들을 기억할 것이다. 더 확실한 것은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사건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본보기이다.

2. 어떻게 당신은 확신 있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라.
3. 학생들에게 성서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준행 하셨는가를 생각해보도록 제안하라. 처음에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미리 준비해 두라.(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는 땅을 홍수로 파괴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지개약속,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탄생 등.)
4.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글을 칠판 위에다 쓰라. 성탄절의 진정한 축하는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는 것을 언급하라.

학습 인도

5.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문장 밑에 학습안내서에 나오는 오늘의 수업을 위한 단원개요를 써놓아라.
 -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한 새로운 이름(62:1-5)
 - 예루살렘 성벽 위의 기도의 용사(62:6-9)
 - “약속 지키시는 자”는 상급과 함께 오고있다.(62:10-12)
6. 인도자 지침서 안에 있는 학습공과 와 “성경주해”의 자료 등을 사용해서, 이사야 62장의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을 강의하라. 백성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희망의 메시지를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라.
7. 학생들에게 이사야 62:1-5절을 큰소리로 읽도록 시키라.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을 회보라.
 - 1절에서 선지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나?
 - 2-3절에 나타난 약속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옛날이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새로운 이름에는 어떤 것들이 언급되어져 있나?
 - 이 새로운 이름들의 뜻은 무엇인가?
 - 5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비유는 어떤 것인가?
8. 이사야 62:6-9절을 큰소리로 읽으라. 이 인도자 지침서에 들어있는 학습공과 와 성경주해 안에서 설명되어진 ‘파수꾼’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만약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병든 세상을 고치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보라. 대답할 시간을 주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토의해 보라.
9. 학생들에게 8-9절을 보게 하라. 하나님의 준엄한 맹세는 과연 무엇인가? 를 질문해 보라.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성경주해 내용들을 원한다면 더 나누도록 하라.

10. 학생들에게 62: 10-12절을 큰소리로 읽게 하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라. 구원은 축하의 기쁨을 안겨다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적용 격려

11. 학습공과 안에 있는 질문들을 토론하게 하라.

12.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이 성경공부반 교실을 걸어나와 교회의 예배실로 가는 길을 찾는 것과 다소 비슷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라. 거기에는 아마 잘못 놓여진 탁자들과 너저분한 의자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길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기간 당신은 그 길을 통해서 예배당으로 갔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교실을 떠나는 순간, 다음 한 주 동안 걸어가야 할 삶의 길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놓여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 놓여진 탁자나 너저분한 의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확신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는 것을 언급하라

[제 6 과]	이사야의 종의 노래 (인도자 지침서)
핵심본문 사 42:1-4; 49:1-6; 50:4-11	<p>학습 주제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본성이 성취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온 세상에 공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p> <p>탐구 질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 모두를 - 도울 수 있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p> <p>교육 목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셨는지 설명하고 이 진리를 그들의 사명에 혹은 그들 교회의 사명에 적용하도록 이끈다.</p>

성경주제

배경이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 40-55장에 걸쳐서 펼쳐진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축복들을 새롭게 하셨다고 선언하셨다.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했던 한 방법은 종의 이미지를 사용해 전하는 것이었다.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네 개의 구절들을 분리했다(사 42:1-9; 49:1-6; 50:4-11; 52:13--53:12).

오늘 메시야는 용맹있는 군인도 아니며, 정치적 영웅도 아니며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야와는 정반대 개념의 메시야였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같은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드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이방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이 당한 수치를 다 복수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해 줄 그 영광스러운 메시야가 아닌 메시야는 메시야 일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만이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 알려 주신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은 나실 방이 없어 마궁간에서 나섰고 구유에 누이셨다. 그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본문해석(42:1-4)

고난 받는 종 그리고 사명(42:1-4)

===== 42:1

나의 종...나의 택한 사람 - 이 두 용어는 동격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전자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혹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결출한 활약을 보였던 인물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다. 본절에서 이 인물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본문의 문맥상 이상적인 통치자 곧 메시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11:2에서는 다윗 계통의 왕에게 동일한 신이 임할 것을 예언한 바 있다.

===== 42:2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 '외치지 아니하며'와 마찬가지로 본 구절 역시 격렬한 분쟁 중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크고 분에 찬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절이 묘사하고 있는 왕은 칼과 창으로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와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즉, 이분의 통치 방식은 세속적인 정복자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 42: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 여기 '갈대'는 높이나 습기가 많은 지대에서 서식하는 연약한 줄기 따위를 의미하는데, '상한 갈대'란 바람 때문에 그 연약한 줄기가 상처를 입지만 꺾이거나 뽑히지는 않는 갈대를 말한다. 본문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인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써 강하게 세워주시는 메시야의 구원 사역을 말한다.

===== 42:4

섬들이 그 교훈을 양망하리라 - 문자적인 뜻은 '섬들이 그의 법을 고대한다'인데, 이것은 1, 2절이 묘사한 분의 의로운 통치를, 열방을 포함한 온 세계가 바란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49:1-6)

===== 49:1

여호와께서...말씀하셨으며 - 본문의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인다. 먼저 이스라엘 혹은 고레스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근거는 본절에 나오는 '부르셨고', '이름' 따위의 표현이 분명히 이스라엘이나 고레스를 가리키는 43:1;45:3과 연관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반면에 메시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근거로는 43:1;45:3과는 달리 본 문맥이 종으로 오신 메시야를 요청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우리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신약은 예수께서 그의 출생 전부터 메시야의 사역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출생 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부여받았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마 1:21;눅 1:31). 42장 이후 일반적인 용어들로 그 특성과 사역이 암시되었던 메시야는 본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그가 감당할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라에도 구원 사역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 49:2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설득력과 능력을 나타낼 때 '찌르는 것', '검' 따위에 비유한다(전 12:11;히 4:12). 한편, 계 1:16;19:15 등에서 요한은 본문을 인용하여 구세주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 바로 앞 구절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때 '나'는 칼과 같은 능력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은 망토에 칼을 숨기듯 메시야의 칼과 같은 말씀을 숨기셨다가 적절한 때 그 말씀을 내실 것이다.

===== 49:3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 여기 '종'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1)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유대인'으로 보는 견해인데(41:8)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선포에 근거를 둔다(44:23). 이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 종에 대한 언급으로 나오는 후속절의 내용이 결코 유대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본서 저자인 이사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이스라엘'이란 호칭을 이사야에게 붙여줄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쉽게 반박된다. (3) 메시야로 보는 견해이다. 사실 후속절들에 나오는 이 인물에 대한 묘사와 신약에 나오는 설명(마 13:57;눅 2:32)은 메시야와 일치하고 있는 특히 7절에 열방의 왕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언급은 메시야 외의 다른 인물을 적용시키기 힘들다는 점을 확정짓는다. 문제는 '메시야'에게 '이스라엘'이란 호칭이 붙여진 점인데 한 개인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호칭이 부여되었듯이,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신 메시야에게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이란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될 만하다 하겠다.

===== 49:4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 메시야 당시 팔레스틴 땅의 인구 수에 비해 결국 그의 사역을 통해 믿게 된 자의 수가 너무 적을 사실을 내다보는 언급으로 이해된다. 성경은 메시야의 부활을 믿는 수준에 이르렀던 자의 수가 대략 5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측케 한다(고전 15:6).

나의 신원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 '나의 심판이 여호와와 함께 있고 나의 상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원문 직역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메시야의 사역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상급을 내리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메시야의 수고와 고통이 결국에는 목적할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42:4;50:7-9). 메시야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53:10-12;벧전 2:23).

===== 49:5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모이게 하시려고 - 양치기가 그의 흘어진 양들을 혹은 암탉이 그의 병아리들을 다시 모으는 장면에서 따온 비유이다:"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마 23:37).

메시야 예수께서 땅에 오신 목적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함이었다.

===== 49:6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이르게 하리라 - 혈통적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일은 메시야가 궁극적으로 이루실 과업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일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반역으로 한 혈통적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막을 내렸고 이제 그 사역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하되 메시야를 구세주로 믿는 개개인들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구원 사역은 이어질 것이다.

인내하는 종(50:4-11)

===== 50:4

본절부터는 화자가 바뀌고 있다. 이 화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본서 저자인 이사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 8절은 이사야가 바벨론 정부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는 사실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 물론 이사야가 심문을 받는 이유는 바벨론이 바사에게 곧 멸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라 것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사야가 바벨론 정부에 체포되어 심문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은 없다. 다른 하나는 메시야로 보는 견해이다. 초대 교회 시대 이후 지지를 받아왔던 이 견해는 결정적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을 인용하여 그 자신에게 적용시키셨던 사실을 들고 있다(눅 18:31, 32). 이 결정적인 단서를 빼고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철저하게 능욕당함(6절), 여호와로 인한 궁극적 승리(8절) 등은 이사야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메시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들이라 하겠다.

꼰AFP한 자 - 문자적인 뜻은 '지친 자'이다. 죄 의식으로 눌려 있는 자 혹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50:5

귀를 열으셨으므로 - 이 표현은 가르침의 전달이나 임무 수여를 뜻할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룻 4:4; 삼상 9:15). 메시야는 인류 구속의 성취라는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 받으셨다. 비록 그 임무 수행에는 온갖 고통이 따르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셨다.

===== 50:6

나를 때리는...등을 맡기며 - 물론 이사야 자신도 이 같은 유의 시련을 전혀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었다(마 27:26; 놀 18:33).

수염을...맡기며 - 수염은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영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 중 하나였다. 특히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로 간주되었다. 로마의 악한 소년들 중에는 족집개로 학자들의 긴 수염을 뽑는 못된 습관을 지닌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 무례하고 사악한 부류에게 메시야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뺨을 맞으셨다(마 26:67; 놀 18:32).

침 뱉음 - 누구의 면전에서 다른 곳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은 모욕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더구나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바로 이 모욕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눅 18:32; 막 14:65; 15:19).

===== 50:7

고통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모든 오욕을 인내로 이겨내실 것임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 성경에서 마음, 이마, 얼굴 따위를 굳게 한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부여된 임무를 고통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는 각오가 담겨져 있다:"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겔 3:8, 9).

===== 50: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 여기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을 의롭다 하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메시야의 의롭고 무죄하신 품성을 인정하고 드러내심을 가리킨다. 메시야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과정에서 이 사실은 잘 드러난다. 먼저 그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를 통하여(마 3:17), 그가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빌라도 아내의 입을 통하여(마 27:19), 심지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눅 23:47) 그의 의로움이 증거되었다.

결국, 이는 그의 공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인정 속에 되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며 그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사 하늘로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의 의로우심은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 문자적인 뜻은 '누가 나의 재판의 주인이냐'이다. 얼핏 보면 재판장이 누구냐는 질문으로 보이나, 문맥상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불의함을 선고하기 위하여 재판을 걸어오 는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의 질문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 누가 재판을 걸어봐도 결국 메시야 자신의 의로움은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 50:9

주 여호와께서...누구뇨 - 사도 바울 역시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 50:10

너희 중에...누구뇨 -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견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절이 묘사하는 대상, 곧 경건한 자의 숫자가 매우 적을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단순히 '누구든지'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보는 견해이다. 문맥상 후자가 타당하다고 본다. 본절에서 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혹독한 재앙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말고 메시야 자신을 본받아 자신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50:11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떤 자 - 원문 직역은 '섬광(불꽃)으로 너 자신을 둘러쌀 불을 지피는 자'이다. 여기 '섬광(불꽃)'이란 지속적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큰 광채를 내지만 곧 스러지고 마는 문자 그대로의 불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본 구절이 암시하는 바는, 인생 여정에서 역경을 만날 때 자신의 보잘것 없는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보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영매, 마법 등에 의존하는 영적 무지에 빠졌던 백성들 혹은 인간 철학의 교묘한 울무, 거짓 종교, 무신론, 자기의 등에 빠져 있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결국 그 의존하는 것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만다.

이것은 마치 빛과 열기를 기대했던 불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아무튼 10절과 본절은 인생 여정, 특히 역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자신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뚜렷이 대조시킨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다음 정보가 담긴 내용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벽에 붙이라.

네 개의 종의 노래들

주의 종(42:1-4)

종은 세상의 빛이다(49:1-6)

종은 순종한다(50:4-11)

고난받는 종(53:1-12)

2주 동안 이 네 개의 노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라고 반원들에게 말하라.

학습인도

2. 이번 단원의 핵심인 고난받는 종과 관련된 학습활동을 위해 세 개의 응답지를 준비하라. 각 반원에게 세 장씩 나누어 주도록 하라. 각 페이지 윗부분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제목을 붙이라. 이 제목 밑에 다음의 질문들을 기록하라.

- 그 종의 특징들은 어떤가?
-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성취하셨는가?
-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3. 각각의 구절들을 반원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나누어준 응답지에 각 질문에 답하도록 하라. 다음은 샘플용 답안지이다.

주의 종(42:1-4)

a. 그 종의 특징들은 어떤가?

- (1)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올리시고 불zap으실 것이다(42:1a)
- (2)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42:1b)
- (3)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뻐하신다(42:1c)
- (4) 그는 조용히, 겸손히 사역하신다(42:2)
- (5) 그는 약자의 편이시다(42:3)
- (6) 그는 그의 목적을 견고히 이루신다(42:4)

b.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성취하셨는가?

- (1) 마 2:13
- (2) 마 1:22-23; 12:18-21
- (3) 마 3:17
- (4) 마 13:53-58
- (5) 마 11:28-30
- (6) 마 26:42

c.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 (1)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지켜주실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역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
- (3)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목적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크게 기뻐하신다
- (4) 참된 위대함은 종종 나타나지 않는다

- (5) 우리의 사역은 약한 자들을 향하여야 한다
- (6)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충성해야 한다

좋은 세상의 빛이다(49:1-6)

a. 그 종의 특징들은 어떤가?

- (1) 그는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셨다(49:1)
- (2) 그는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준비하셨다(49:2)
- (3) 그는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49:3)
- (4) 그는 하나님께서 섬김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49:4)
- (5) 그는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지으셨다(49:5)
- (6) 그는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지으셨다(49:6)

b.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성취하셨는가?

- (1) 마 1:21-23
- (2) 마 4:1-11
- (3) 마 17:1-5
- (4) 마 28:18
- (5) 마 10:5-8
- (6) 마 28:19-20

c.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 (1) 우리도 도한 섬기도록 부르셨다.
- (2)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성경공부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 (3)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 (4) 우리의 보상은 섬기기 위한 더 많은 기회들이다
- (5) 우리는 예루살렘(가족)과 유다(친구들) 가운데서 중인이다
- (6) 우리는 사마리아(모르는 사람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있는 사람들에게 중인이다(행 1:8)

좋은 순종한다(50:4-11)

a. 그 종의 특징들은 어떤가?

- (1)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근원이다(50:4-5)
- (2) 그는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다(50:6)
- (3)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50:7)
- (4) 그는 결백함이 드러날 것이다(50:8)
- (5) 그는 모든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50:9)
- (6) 그는 빛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청하셨다
- (7)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의 근원이 될 것이다

b.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성취하셨는가?

- (1) 마 7:28-29
- (2) 마 26:2
- (3) 마 7:21
- (4) 마 7:22; 26:64

- (5) 마 7:23
- (6) 마 25:34-40
- (7) 마 25:41-46

c.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 (1)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천에 더욱 성실해야 한다
- (2)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
-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4)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으로 드리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6)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 (7) 자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적용격려

4. 반원들이 각 종이의 마지막 질문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라. 반원들이 이 대답 중 몇 개를 골라서 이번 주에 적용하도록 격려하라.

<p>[제 7 과]</p> <p>핵심본문 사 53:1-12</p>	<h2>그의 상하심으로 치유 받음</h2> <p>(인도자 지침서)</p>
<p>학습 주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p> <p>탐구 질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p> <p>학습 목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응답한다</p>	

성경주제

배경이해

사 52:13--53:12은 이사야의 네 개의 종의 노래에서 가장 긴, 가장 마지막인, 가장 잘 알려진 노래이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켜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 본 구절을 해석해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자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본 구절을 사용해왔다.

종은 이러한 종의 노래로 인해 “고난받는 종”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그의 고난과 아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의 주요 사명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 종은 진실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그 구절의 핵심은 고난에 대한 승리인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 대한 개념은 초반부 종의 노래들에서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개념이 더욱 발전되어 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있는 왕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나라들을 통해 비쳐지는 능력과 영향력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한 신적 방법으로서 고난을 도입하실 때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본문해석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53:1-3)

===== 53: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 '우리'에 대해서는 (1) '선지자 자신', (2) 52:15의 '열방들', (3) '이스라엘 백성, 특히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 등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으나 마지막 견해가 가장 나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들 '우리'는 수난 받는 메시야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또 저들의 고백은 거의 회개에 가까운데,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새로운 깨달음을 믿은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 53:2

주 앞에서 - 여기 '주'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종'의 삶의 과정은 인간들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벧전 2:4).

자라나기를 - 문자적인 뜻은 '그가 자라나셨다', 과거 시제(완료형)로 되어 있다. 본 동사의 시제를 따르다면 본절이 나타내는 인물은 본서 저자 이사야의 과거 시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모세, 음, 예레미야 등을 거론할 수 있지만 본장이 묘사하는 종과는 비교될 수 없다. 결국 이 종은 메시야인신 예수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저자가 과거로 시제를 적은 이유는 본서 저자가 미래를 내다볼 때 자신이 예언하는 메시지의 성취를 너무나도 명백히 보고 있었으므로 자신에게는 그 일이 이미 발생한 것처럼 확신 있게 적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예언적 기술법 중의 하나인 '예언적 과거'라 부른다.

마른 땅 ... 줄기 - "이새의 줄기에서 한 쪽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11:1)를 연상케 하는 구절이며, 특히 '마른 땅'이란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해 있던 비천한 상황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53:3

본절에서 저자는 '종'의 비하(卑下)를 좀더 상세히 묘사한다. 멸시를 받아서 - 여기에는 거절과 배척의 의미가 들어 있다. 그가 고난의 결음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를 거절하고 배척 했다. 고난의 '종'에 대한 태도 문제에 있어서 중립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를 배척하고 멸시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그에 대한 무관심 역시 그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이다.

질고를 아는 - 문자적인 뜻은 '병을 잘 아는'이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그가 육체적으로 허약하여 이런 저런 질병에 계속 걸렸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병'은 '죄'를 묘사하는 비유적 술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미 육체적 질병을 비유로 해서 유다의 죄악 상태를 드러낸 바 있다(1:5,6). 따라서 성취될 구원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이 분명하다.

죄를 진 종(53:4-6)

===== 53:4

우리의 질고를 지고 - '종'이 짊어진 질고와 수난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대리 개념이다. 의로운 한 분이 질고와 힘물과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대신하셨다는 것이다(롬 5:17-19). 이것은 그 '수난자'가 자기 백성을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함의한다. 왜냐하면 죄와 그 결과는 분리될 수 없다 것이기 때문이다.

'수난자'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다.

===== 53:5

본절은 '종'이 고난받은 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 '허물'이란 단순한 실정법들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변적인 법에 대해서 범죄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진노와 그 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 죄들은 영원한 사망을 치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인간이 지불할 사망이란 요구가 '종'에게 떨어졌던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여기 '찔리다', '상하다'등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두 단어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시사하는 용어들이다.

평화 - 이것은 단지 외적인 안녕과 조화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곧 하나님과의 평화를 뜻한다.

===== 53:6

본절은 신학의 대요이다. 먼저,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전적 부패 교리의 근거가 된다.

둘째로, 본장에서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던 '여호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의 근거가 된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구원 교리로 볼 수 있다.

양과 같이 도살 당하는 종(53:7-9)

===== 53:7

본절은 고난에 대한 종의 태도를 요약해준다. 먼저 '곤욕을 당하여'는 좀더 풀어보면 '그가 자신을 곤욕당하도록 내맡기셨다'이다. 이것은 종이 고난을 자원하여 받은 것을 가리킨다. 또한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냈다는 것을 가리킨다. 종은 고난을 자원하였을 뿐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셨는데,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텔 깎는 자 앞의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53:8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 '곤욕', '강압', '구금자'가 그 문자적인 뜻인데, 따라서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감옥'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신약에 비추어 볼 때 '체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무튼 '종'은 법적인 과정을 밟아 사형 언도를 받기에 이르렀다. 혹자는 이 같은 결과가 단순한 오판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종종 무죄한 피고가 부당히 고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다. 그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종'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죄로 저주 아래 있던 이 땅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잔인하게 죽였다.

===== 53:9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로 낙인 찍혀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후 부자의 묘실에 장례된 것을 연상케 한다

(마 27:32-61).

하나님에 의해 존귀함 받는 종(53:10-12)

===== 53:10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 하나님께서 그를 즐겨 고난 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다.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의 차이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속건 제물은 부채를 갚거나 또는 부과된 죄값을 만족시켜서 죄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목적으로 드려졌다(레 5:15). 이제 우리는 '종'의 비참한 죽음과 처참한 고난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그의 죽음, 즉 그의 생명의 피를 쏟아 부은 속죄를 위해 계획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이었다.

한편 '종'의 죽음이 희생 제물이었다는 말은, 그 '종'이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셨다는 말이기도 하다. 종은 다른 제사장과는 달리 기꺼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따라서 그것은 모세 율법의 제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제사로서 다른 제사의 원형이며 실체이다 :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6).

그 씨를 보게 되며 - 여기 '씨'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영적 후손을 가리킨다(시 22:30). 유대 사회에서 많은 자손은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였다. 물론 살아 생전 누리는 축복이었다. 그런데 종은 죽음으로써, 또 죽어서 그 축복을 누리신다. 그 날은 길 것이요 - 장수 역시 큰 축복 중의 하나였다. 이제 종 메시야는 죽음에서 일어나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후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호 6:2; 롬 6:9).

===== 53:11

자기 자식으로 - 이는 '그(종)의 지식으로'(by his knowledge, KJV, RSV,) 혹은 '그(종)에 관한 지식으로'(by knowledge of him) 등 두 가지로 해석된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본문 이해에는 별무리가 없으나,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50:4 내용 등을 고려하건대, 첫 번째 견해를 더 지지하고자 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 이것은,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근거가 된다.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말이다. 죄악을 짊어짐으로 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완전한 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주어진 '의'는 '법정적 칭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 53:12

본 장은 종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선포를 끝맺고 있는데, 종이 위대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 승리는 바로 종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 얻은 결과였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 :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엡 4:8).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6파에서 만든 단원 포스터를 벽에 붙여라. 지난 주 배운 내용이 지난 주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누도록 하라. 이러한 간증과 관련된 기도제목들을 나누도록 하라. 오늘 토론될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라.

2. 반원 중 한 사람이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가를 읽거나 혹은 부를 수 있도록 하라. 또한 마 26:67-75절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노래와 성경본문에 대한 활동이 끝난 후 베드로가 왜 그리스도를 부인했었는지에 대해 말하도록 하라. 반원들의 반응에는 베드로가 두려워했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승리로 보기보다는 죄로 보았다. 그들이 지도록 요구받은 십자가가 두려워 혹은 부끄러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었던 유혹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보도록 반원들에게 도전하라.

3. 종이 쪽지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기록하라: 준수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사랑 받고 환호 받는; 경멸받고 거절당하는; 하나님에 의해 축복 받은; 외모나 행동에 있어서 평범한; 선한 사람; 죄의 본질; 행복하고 근심이 없는; 커다란 질고를 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불공평을 예상하고 받아들임; 지극히 성공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주 건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커다란 고난을 받는;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위대함을 운명 지어진.

4. 포스터 종이나 커다란 종이에 사람의 아웃라인을 그려라. 이 아웃라인에 위에서 만든 종이쪽지를 압정으로 붙이도록 하라. 공부를 시작하면서 반원들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 기록된 종이쪽지를 선택하도록 하라. 사실 반원들이 직접 그림 앞에까지 가서 그 종이쪽지를 떼어서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라.

학습인도

5. 포스터 종이 위에 남아 있는 종이 쪽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라. 그리고 만일 부정적인 쪽지들이 남아 있다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메시아의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임을 지적하라.

각 구절이 읽혀지고 토론되어질 때 이 구절과 관련된 종이 쪽지를 포스터에서 골라라. 또한 반원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종이를 각 구절과 관련짓도록 하라.

6. 각 구절을 토론하기 위하여 다음 질문을 사용하도록 하라:

- a.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러한 예언들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예들은 무엇인가?
- b. 왜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묘사된 모습으로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선택하셨는가?
- c. 4절에 의하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값은 무엇인가?
- d. 하나님께서는 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처벌하셔야 했는가?
- e. 계속적인 기름부음이 필요하다는 것(6절을 보라)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 f. 왜 예수님께서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침묵을 지켜야 했는가?
- g. 8절에 묘사된 최후의 최종의 능욕은 무엇인가?
- h. 어떤 모순적인 선언이 9절에서 발견되는가?
- i. 10-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들은 무엇인가?

적용격려

방에 붙은 포스터 종이에 반원들이 가지고 간 종이쪽지를 다시 가져다 놓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수업시간의 토론 중에 사용된 종이 쪽지를 나누어주도록 하라. 그들이 받은 종이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의 수업이 메시아에 관한 이러한 묘사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는지 나누도록 하라. 이번 주에 최소한 한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결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제 8 과] 핵심본문 렘 1장	<h2 style="margin: 0;">어려운 소명</h2> <p style="margin: 0;">(인도자 지침서)</p>
<p>학습 주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부르신다.</p> <p>탐구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어려운 일은 무엇이며,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p> <p>교육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나의 경험을 이야기한다.</p>	

성경주제

배경이해

저자는 1:1, 2에 나와있는 대로 예레미야이다. 그는 아나돗 출신으로서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그는 요시아 통치 13년(BC. 626-627년 경)에 소명을 받았다(렘 1:2). 그의 사역 초반부는 41년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BC. 627-586). 그 후의 사역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애굽에서 이루어졌다(렘 42-44장). 그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를 강제로 애굽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곳에서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다.

그의 사역은 최소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멸망에 관한 경고였다(1:10 上). 또 하나는 건설적인 면이었다(1:10 下). 그의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임무는 두가지 비전으로 표현되었다. 건설적인 면은 1:11부터 나와있는 "살구나무("깨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음)"에 관한 비전으로 나타났고, 멸망에 관한 면은 1:13에 나와있는 "끓는 가마(하나님의 분노가 임박한 전쟁으로 나타날 것을 의미했음)"에 관한 비전으로 표현되었다

본문해석

역사적 배경(1:1-3)

=====1:1

베냐민 땅 아나돗...예레미아의 말이라 -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으로서 예루살렘 북동쪽 약 4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오늘날은 '아나타'란 지명으로 불리지고 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할당되었다(수21:13-19). 한편 제사장 엘리 가문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다윗을 이를 후계자로 아도니야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솔로몬에 의해 이곳 아나돗으로 추방된 바 있다(왕상2:26). 한편 예레미야는 제사장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나돗의 제사장'이란 말은 그의 부친 힐기야를 수식하는 말인 것으로 보이며, 만약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다면 그의 메시지와 예언에는 어느 정도 그의 제사장 직분의 배경이 반영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Nicholson).

=====1:2

요시야의 다스린지 삽삽 년에 - 이는 B.C.627년을 뜻하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때를 가리킨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시드기야의 제 삼 일 년 말까지 - 이는 예루살렘 함락 때인 B.C. 586년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40-44장에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함락 이후 몇 년 동안에도 예레미야가 사역 활동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이는 본서의 표제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구절로 이해된다.

신적인 임명(1:4-8)

=====1: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도 포함하는 말이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13, 18, 19장; 51:59-64).

=====1:5

내가 너를 복종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 이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질 하나님의 사자로 선택받은 것이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롬 8:29, 30참조).

너를 구별하였고 - '구별하였고'의 원어 '캬다쉬'(*) 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 장소, 시간 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하는 것은 참람한 행위이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 이는 예레미야의 특별 임무를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그의 예언은 유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본서의 많은 부분이 열방을 상대로 한 예언이다(46-51장).

=====1:6

나는 아이라 - '아이'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된다.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대제국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임무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애돔, 다메섹, 블레셋, 암몬과 같은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투쟁해 온 긴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역시 힘겨운 상대로 느껴졌을 것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 그의 이런 주저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유사하다. 모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며 고사(苦辭)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출3:11; 4:1).

=====1:7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예레미야에게는 청중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내는 곳이면 어디나 가서, 누구를 막론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다.

=====1:8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는 이상 두려워 할 게 없다는 뜻이다. 예레미야는 출애굽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내셨는지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본문에서 '구원하리라'에 해당하는 원어는 '나찰' 동사의 헤필형 부정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말도 이 동사로 기록되었다(출18:8).

하나님의 만지심(1:9-10)

=====1:9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 이 말씀은 신 18:18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이것을 통해 예레미야는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로 약속된 바 있는 선지자임을 자각했을 것이며, 더욱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10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특수 임무가 언급되고 있다. 그가 전달할 선포의 내용은 크게 파멸과 회복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는 사역 초기에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강도 높게 설교하였고, 후기에 가서는 회복에 대해 말하였다. 또한 본절은 46-51장에 언급된 이방 민족에게 고하는 심판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본절에는 모두 여섯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네 개는 파괴적인 측면을, 두 개는 건설적인 측면을 가진 동사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1:11-16)

=====1:11

네가 무엇을 보느냐 - 본절과 13절에는 두 가지 환상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소명을 받은 직후인 것 같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 여기서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원어는 '솨케드'로서 아몬드나무, 호두 등의 견과(堅果)나무를 가리킨다. 야곱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선물로 보내는 품목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단행'으로 번역되었다(창43:11). 그리고 '가지'에 해당하는 '마켈'은 '막대기', '지팡이'란 뜻으로 주로 쓰인다. 이 아몬드나무는 봄이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봄오리를 맺는데, 오늘날에도 아나돗 지방에는 초봄에 수많은 아몬드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13-16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面)이 북에서 부터 -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보다 더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시간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끓는 가마'란 알맞은 바람이 아궁이의 불을 지펴 가열되어지고 있는 큰 솥을 말한다.겔 24:3이하에서 이 끓는 가마는 전쟁과 그 결과 야기되는 황폐를 상징하였다. 어떤 학자는 이 '끓는 가마'가 유다 북방에 있는 갈대아인의 침입으로 동요하는 유다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불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 이는 유다에 미칠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훗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성이 무너졌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예 4:12참조).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 유다 백성이 앞에서 언급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또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했던 것이다. 언약 파기로 인한 재난은 본서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중심 사상이다.

지켜야 할 책임(1:17-19)

=====1:17

그들에게 고하라 - 이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말하라는 뜻이다.

두려워 말라 - 이는 신 31:6-8과 수1:6-9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고후 4:8)라고 고백하였으며, 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고 담대히 말했다.

=====1:18

너는...놋 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 여기서 하나님은 군사적 상징어를 사용하여 강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예레미야의 대적들이 왕이나 고관 또는 제사장 등과 같은 기득권층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의 주장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1:19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니라 - 영적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는 구절이다. 곧 영적 승리는 성도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수업 준비를 위해서 당신이 아는 교회 사역자와 함께 짧은 전화 인터뷰를 하라. 다음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나눔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라.

* 나이가 몇 살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는가?

* 그 소명에 순종하는데 자연스러웠는가 아니면 어려웠는가?

- * 그때 당신은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었는가?
- * 언제 당신의 소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가?

학습인도

2. BC 628년에서 584년까지 연대표를 준비하라. 제목을 "예레미야의 세계"라고 제목을 붙이고 다음 같은 가능한 날짜들을 포함하라. 만일 가능하다면, 강의를 하면서 구약 세계의 지도를 참조하라.

627 --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라고 부르심
622 -- 요시야 왕이 율법서를 발견함
609 -- 요시야 왕이 죽음; 여호야김이 통치 시작
605 -- 바빌론이 이집트를 공략함
598 -- 여호야김이 죽음; 여호야긴이 통치
597 -- 여호야긴이 바빌론에게 끌려감; 시드기야가 왕으로 추대됨
587 --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함
586 --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됨; 시드기야가 처벌됨; 계달리야가 통치자로 세워짐
584 --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감

이 연대표가 이번 주부터 6주 동안 사용될 것이다.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된 BC 627년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라.

3. 커다란 종이 위에 "예레미야 이력서"라고 써라. 그리고 종이 위에 이름, 주소, 초기의 삶, 자질, 경력, 직분, 고용된 날짜. 예레미야 1:1-3절을 들으면서 반원들이 처음 세 개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라. (예레미야; 아나돗으로부터,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라남)

4. 이력서 조사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 세 개의 질문들에 답하도록 예레미야 1:4-8절의 내용을 주의해서 듣도록 하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음; 이전 경력 없음; 이방 국가들에 예언하는 일)

5. 9-10절로부터 이력서를 완성하도록 하라. (오늘, BC 627) 질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사명을 확신시키셨는가?

6. 예레미야의 두 환상들에 대한 구절들(렘 1:11-12; 13-16)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반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라.

7. 1:17-1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책임들을 반원들에게 읽어주라. 질문,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그의 메시지를 받았는가? 그의 확신은? 누구에게 그는 말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그는 기대할 수 있었는가? 어떤 보호를 그는 기대할 수 있었는가?

적용격려

8.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를 공부하는 6주 동안 당신 교회의 목사님을 포함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도록 결단하게 하라. 감사 카드를 하나 준비해서 반원들이 자기의 이름과 함께 격려의 말을 더하며 싸인할 수 있도록 돌리라.

9. 자원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했다는 것을 믿을 때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의 삶에 있었던 일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나님을 지금 섬기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마치라.

<p>[제 9 과]</p> <p>핵심본문 렘 7:1-15</p>	<h2>잘못된 믿음</h2> <p>(인도자 지침서)</p>
<p>학습 주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속고 있다.</p> <p>탐구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의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p> <p>교육 목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석한다.</p>	

성경주제

배경이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당시의 외적 상황은 그동안 강성했던 앗수르 제국이 붕괴위기에 처하였던 때였다. BC. 612년에 앗수르가 멸망하고 연이어 바벨론 세력이 급부상하여 강력한 세력으로 유다를 압박하게 되었다. 마침내 바벨론은 BC. 605년, 598년, 587년 세 번에 걸쳐 유다를 침공하게 된다. 애굽 역시 만만치 않은 존재로서 앗수르의 멸망을 계기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바벨론의 서방진출을 막으려는 전략을 펴게 되었다. 요시야왕은 이런 애굽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굽과 전쟁을 벌였으나 결국 패배하고 전사하게 된다(대하 35:20-24).

이런 와중에서 바벨론은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된다. 이 같은 외부적인 요인 가운데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내부적인 상태는 요시야가 8세로 유다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전에는 모낫세의 5년 동안의 통치 등으로 우상숭배는 극에 달한 상태였었다(BKC 예레미야 애가, 찰스 D.A. 지음, 두란노, p. 10-12 참조). 예레미야서 1-6장, 11-12장은 요시야의 개혁시기와 대략 일치한다.

본문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7:1-7)

=====7:1-4

말씀이 임하니라 – 본절부터는 성전에서의 설교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식은 긴 산문체의 연설문 형식을 띠고 있다.

그는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는' 유다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경배하다'란 말의 원어는 '솨하'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이 말은 높은 신분에 있는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부복하여 엎드린다는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면, 그것은 그에게 충성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므로 유다는 멸망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으며, 또한 모든 백성이 이를 환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성전 자체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일 뿐이다. 예레미야 역시 성전 예배를 무시한 적은 없다(31:6' 33:11).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성전 예배가 계속되는 한 안전할 것으로 보았다. 즉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을 예배하는 이런 제도를 이방인들의 손에 내맡겨버리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7:5-7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 이 명령은 이미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이다(신10:18). 하나님은 특히 약자들의 권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이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에 대해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하였다.

무죄한 자의 피를 - 이는 여호야김 통치 기간 중에 벌어진 살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형이 흔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악의로 말미암아 부당한 살육이 자행될 소지가 다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7:8-11)

=====7:9-10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다른 신들을 죽으면서 - 유다가 범하고 있는 죄악의 목록들이 상세히 열거되고 있다. 이 범죄들은 시내 산에서 주어진 언약 규정 조항들과 대단히 유사하다. 첫번째 네개의 죄목들, 즉 도적질과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에 관해서는 출20:13-16에 언급된 바와 같다. 그리고 '바알'과 '다른 신들'이란 말도 출20:3-5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 유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언약의 규정 사항들을 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섰다. 그들의 위선된 행위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7:11

유다 백성들은 악행과 온갖 가증한 일들을 범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무사할 것이라는 미신 속에서 마침내 여호와를 무시하고 성전을 도적의 굴壑로 만들고 말았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강도들과 같이 성전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는 다시 언약을 범하곤 하였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성전에서의 종교 의식을 통해 해소하고 다시 범죄 행위를 도모하였다.

마지막 실형(7:12-15)

=====7:12

'실로'는 엘리 제사장 당시 여호와의 성소가 있던 곳으로서 그 당시 백성들은 이곳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제사하였다(삼상1-4장). 그러나 이 실로는 B.C.1,050년에 불레셋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속해 있었으며 벤엘과 세겜 사이에 있었다(삿21:19). 하나님의 법궤는 무려 백년 이상이나 이곳에 있었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반환받은 이후 다시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았다.

유다 사람들은 이 실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역시 예외가 되지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 하더라도 백성 중에 죄악이 있는 한 그것이 결코 불가침의 수호자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성전과 성전에서의 모든 종교 행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귀한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언약을 대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7:13

본절에서는 아버지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자식을 교훈하는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열심히 그리고 빈번하게 경고하고 호소하며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7:14-15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며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었다.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 '실로의 파멸'이라는 분명한 예화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것이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죄악으로 인한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극이었다. 열 지파도 아낌없이 멸망시켰는데 솟적으로 훨씬 더 열등한 유다가 과연 어떻게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빨간 색, 하얀 색, 파란 색 컬러 펜을 사용하여 다음 질문을 종이에 써라: 무엇이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가? 수업을 시작할 때 다음 종이를 전시하라. 벽 위에 다음과 같은 가능한 대답들을 기록하라.

- 우리 나라의 군사력
- 우리의 강한 국가 지도자들
-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민들
- 우리의 종교적 믿음들의 다양성
- 우리의 경제적 부유
- 개인적인 결정

반원들이 토론과 함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라. 당신도 포함시킬 수 있다.

2. 빨간 색, 하얀 색, 파란 색 컬러 펜을 사용하여 두 번째 질문을 쓴 종이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학습 공과의 내용을 활용하라.

학습인도

3. 예레미야 7:1-12절을 소리내서 읽고 학습 공과 "하나님의 명령"을 반원 중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그 다음 질문을 하라, "그러한 글을 읽는 동안 무엇을 들었는가?" 예레미야의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라.

4. 칠판이나 벽 위에 "그들" 그리고 "우리"라는 레이블이 붙은 두 개의 챕트를 준비하라. 당신이 예레미야 7:3-8절을 소리내서 읽을 때 반원들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들을 주의해서 들도록 하라. 반원들이 "그들"이라고 써진 곳에 대답들을 기록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우리"라고 써진 곳에 우리들이 짓는 죄들이 무엇인지 기록하도록 하라.

5. 7:9-11절에서도 4번과 마찬가지로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라.

6. 학습공과 "역사가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을 믿으라"의 내용과 이 구절들에 대한 인도자 지침서의 내용을 이용하여 7:12-15절의 실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들을 설명하라.

적용격려

7. 우리의 예배 경험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욱 변화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섯 가지를 반원들이 제안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대답할 때 그것들을 기록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그들의 학습공과에 대답들을 기록하도록 하라.

8.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한국을 의무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반원들이 토론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질문하라, "어떤 식으로 우리 각자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9. 지난 주 교회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카드들을 돌린 숙제에 대한 보고들을 하도록 하라.

10. 기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라.

<p>[제 10 과]</p> <p>핵심본문 렘 22:1-5, 13-17; 23:9-18</p>	<h2 style="text-align: center;">불충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h2> <p style="text-align: center;">(인도자 지침서)</p> <p>학습 주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권을 하나님의 교훈에 부합하여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p> <p>탐구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에 대해 얼마나 충실한가?</p> <p>교육 목표 충실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안다.</p>
---	---

성경주제

배경이해

예레미야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두 가지로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가이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심판의 예언과 권고의 예언을 하였다. 간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권유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주었던 가장 귀중한 예언은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란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다. 그 새 언약의 근거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우상을 섭기고 살던 유대의 백성들과 똑같이 현대적인 우상들, 즉 돈과 명예와 성 등 우상숭배에서 돌아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본문해석

왕궁에서 설교함(22:1-5)

=====22:1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 이 단락의 말씀 역시 시드기야 때에 작성되어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2:2

여호와의 말씀은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전달된다. '네 신하와 네 백성'이란 표현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네 종들과 네 백성'이다. 그러나 이곳의 '종'이란 말은 왕의 신하들이나 관리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22:3

왕과 모든 백성은 항상 모든 사실을 다 고려한 후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할 것 이 항상 요구되었다. 특히 왕이 하여야 하는 주요한 임무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의를 세우고 타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며 - 이들 세 계층에 대한 보호는 언약 규정조항의 일부였다(출 22:21-26; 23:9; 롬 19:33, 34; 신 10:18, 19; 24:17). 왕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시내 언약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 이 지적은 재판상의 불공정이나 권력의 남용에 따른 무죄한 피흘림뿐만 아니라 도법에서의 인신 제사와 관련된 극악한 관행도 가리키는 것 같다(7:31; 19:3-15).

=====22:4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 예레미야는 이제 왕가의 존속 여부가 어디에 달렸는지를 지적한다. 그것은 왕들의 여호와 율법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22:5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이 집이 황무하리라 -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를 둔 백성이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번영이 있을 수 없었다.

지도자들의 혼동된 우선 순위(22:13-17)

=====22:13

최근에 라맛라헬(Ramat Rahel) B.C. 7세기 말경으로 보이는 세련된 건물터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며 또 어쩌면 그것이 여호야김의 작품이었을 수도 있다. 제5단계의 발굴은 B.C. 600년경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세련된 석조 건물로 만들어진 외벽과 대문 그리고 내부의 거대한 건물이 있는 이스라엘 후대의 성이 서 있었다. 여호야김은 왕위에 올랐을 때 겨우 25세밖에 되지 않았고 또 36세에 죽었던 바(왕하 23:36) 엄청나게 타락하고 자기도취에 빠졌던 짚은 독재자였을 것이다.

=====22:15, 16

여기서 여호야김은 그의 아비 요시야와 대조되고 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적 권위를 근사한 궁궐을 지음으로써 과시하고자 했다. 반대로 요시야는 왕으로서 지녀야 할 진정한 가치 기준과 수행해야 할 책무를 바로 깨달았다. 그는 압제나 허장 성세라고 하는 불의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공평과 정의를 먹고 마시는 음식처럼 소중히 여겼으므로(요 4:34 참조) 고통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설 줄 알았다.

=====22:17

여기에는 여호야김의 악행이 통렬하게 지적된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이기적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왕하24:3,4), 또 독재와 강탈에 혈안이 되었 것이다(3절 참조).

설교자들에 대한 설교(23:9-18)

=====23:9

본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며 경고하고 있다. 백성들은 미혹시키는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선지자들도 경계한 바 있지만(사28:7-13;겔13:1-16;미3:5-12) 특히 예레미야가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던 대상이다(2:8;5:30,31 ;6:13,14;8:10, 11;14:13-15;18:18-23;26:8, 11;27:1-16).

=====23:10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찼음을 말한다(5:7, 8).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 숭배는 풍요의 결실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저주로 인하여 땅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슬퍼하며 불모지가 되어 버렸다.

=====23:11-12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 '내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이방 종교 의식과 부도덕한 관행들을 시행하여 오염시켜 놓았던 것이다(왕하 21:3-7;23:4-7).

배도자들은 사악한 동기에 의해 스스로 이 길로 들어섰으며 이제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23:13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 여기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볼 수 있겠다(Bright).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으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거짓 선지자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나 참선지자는 민족이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께 전폭적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알고 있다.

=====23:14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을 행동과 삶으로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의 악한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격려하였다.

=====23:15

쓱이란 '저주하다'는 뜻을 추측되는, 잘 사용되지 않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맛이 쓴 식물이다. 이 말과 함께 독한 물이란 말이 쓰이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종종 이 두 낱말이 짹을 이루며 쓰인다(9:15).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처벌의 고통이 쓰라리고 치명적이 될 것임을 나타낸다.

=====23:16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 이들은 백성들에게 안전과 태평성대를 약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죄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설 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죄악에 가담해 있었을 것이다.

=====23:17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이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오직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지, 악과 범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았다.

=====23:18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예하여 - 이 구절은 누구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자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여호와의 회의를 알 수 있는 자란 아무도 없다는 옵 15:8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법정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책상, 의자, 나무 망치를 준비하라. 반원들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텔레비전을 보았는지 반원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라.

학습인도

2. 다음 같이 써진 세 개의 플래카드들을 준비하도록 하라: (1) 법적인 계약서; (2) 사건 1: 노동자들 대 여호야김 왕; (3) 사건 2: 예레미야 대 종교적 지도자들. "재판관 책상" 위에 첫 번째 플래카드를 올려 놓으라.

3. 반원들이 계약서의 양 당사자들이 누구였는지(하나님과 유다 왕) 주의해서 듣도록 미리 말하고 반원 중 한 사람이 예레미야 22:1-5절을 읽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말하라. 하지만 그 약속은 철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질문,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여호야김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6절을 주의해서 읽도록 하라.

4. 첫 번째 플래카드를 두 번째 것으로 바꿔 놓으라. 노동자들의 진술을 주의해서 듣도록 미리 말하고 반원 중 한 사람이 렘 22:13-17절을 읽도록 하라. 질문, 예레미야는 어떻게 여호야김 왕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 비교했는가? 왜 아들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는가? 18-19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판결을 주목하라.

5. 마지막으로 두 번째 플래카드를 세 번째 것으로 바꿔 놓아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레미야가 지적한 죄들(간음, 사악, 불공평, 거짓 말, 나라를 잘못된 곳으로 빼지게 함, 거짓 예언들)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듣도록 하고 반원 중 한 사람이 23:9-18절을 읽게 하라. 질문,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일을 계속하게 했는가? 왜 어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고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랐을까? 15절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판결을 주목하라.

적용격려

6. 반원들이 좋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들 가운데서 찾아 기록하도록 하라(예: 22:3 -- 공평, 정의, 약한 자들을 도움; 22:9 --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 22:13 -- 사람들에 대한 공평; 22:17 정직한 수입, 생명의 존중; 23:10 -- 도덕적 삶; 23:14 -- 개방성, 성실성; 23:15 -- 모범된 삶; 23:18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7. 예레미야의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반원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기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라.

[제 11 과]	<h2 style="margin: 0;">용기있게 응답함</h2> <p style="margin: 0;">(인도자 지침서)</p>
핵심본문 램 37:1--39:10	<p>학습 주제 진실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용기있게 응답하는 것을 요구한다</p> <p>탐구 질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p> <p>교육 목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p>

성경주제

배경이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아김을 이어 왕이 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제사장을 보내 여호와께서 어떤 말 씀을 하시는지 알아달라고 청했다. 예레미야는 서슴지 않고 여호와께서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였다. 즉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였다.

이과는 예레미야서 중에서 가장 슬픈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누차 경고했던 대로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왕은 양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것이 곧 여호와의 예언을 불순종하고 정면으로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의 결과이다.

본문해석

새로운 왕 ; 같은 결과들(37:1-2)

=====37:1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 본절과 다음 절은 본장과 38장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앞장(36장)에서는 여호야김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다시 시드기야 재위 당시의 사건으로 넘어오고 있다.

=====37:2

유다가 민족적 파멸에 봉착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영적 차원의 것이었다. 한편 본문은 왕하 24:17-20에 언급되고 있는 시드기야에 대한 기사를 압축해서 옮겨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왕하에서의 주된 쥐지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후 그 역시 선왕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시드기야가 자기 신하들과 방백들이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배척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도 거기에 끌려다녔던 것이다.

잠시의 정벌(37:6-10)

=====37:6, 7

애굽 군대는 갈대아인의 군대에 패하고 만다는 예언이다. 그들이 출병한 것도 사실 유다를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즉각 자기를 나라로 철수했으며,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는 데는 방해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37:9, 10

느부갓네살에게 비록 부상당한 병사만 있다고 해도 그가 승리할 것으로 혔던 기대를 버리라는 내용이다. 이런 수사적 과장법은 예루살렘의 패망과 파멸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선지자의 대답은 그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분명하고도 단호하였다. 오히려 유다 멸망에 대한 그의 확신은 그 이전보다 더 강렬했다. 바벨론군의 철수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고조되어 있던 그 시점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은 심각한 반발과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옥에 갖힌 예레미야(37:11-17)

=====37:11-12

갈대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 예레미야가 체포되는 사건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중단되고 백성들이 성밖으로 다닐 수 있던 그 어간에 발생했다. 본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37:13-14

즉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해 왔었으며(12:9 ; 38:2), 많은 유다인들은 실제로 적에게 투항하였다(38:19 ; 52:15). 더군다나 바벨론이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었다.

=====37:15-16

요나단의 집을 왜 감옥으로 사용했는지 하는 점은 알 수가 없다. 아마 유다 관리인들의 집에는 임시로 죄수 등을 감금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었던 것 같다(Ciarke). 그들은 공정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레미야를 때리는 등 아예 흉악법 취급을 하였다.

38:6, 13을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여기서도 예레미야는 이 집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것이다. 어쨌든 이곳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될 경우 결국 죽게 되고 말 비참한 장소였다(20절). 그는 시드기야가 그를 불러들였을 때까지 이곳에 상당 기간 동안 갇혀있었던 것 같다.

=====37:17

본절의 장면은 시드기야의 소심한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왕이 자기 신하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밀히 자문을 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받은 메세지는 이전과 같은 것이었다. 즉 왕의 운명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졌다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에 있었으나 진실을

왜곡시킬 수는 없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기회(38:14-23)

=====38:14

37:17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본문에서는 비밀 회담이 이루어진 장소가 여호와의 집 제 삼 문으로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다. 이 문에 대해서는 다른 곳의 언급이 없어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추측컨대 왕궁과 성전을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서 왕이 개인적으로 출입했던 그런 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8:15-16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 예레미야는 왕의 성품이 나약하고 또 그의 신하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여호와로부터 온 말씀을 전해준다고 해 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임을 알았다. 시드기야는 앞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한 바 있으며 또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었다(32:1-5). 그러나 지금은 사태가 대단히 심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방백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16절).

=====38:17-18

왕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성의 안전 여부가 달려 있었다. 시드기야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전과 동일하였다(2, 3절 ; 21:8-10 참조). 왕과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항복이었던 것이다. 항복을 권유하는 이 메시지로 인해서 그는 방백들에게 불잡혀 구덩이에 던져졌다.

=====38:19-20

나는 갈대아인에게 행복한 유다인을 두려워 하였노라 – 여기서도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다시 노출된다. 그는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말에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갈대아인들에게 투항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8:21-23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먼저 투항했던 자들의 조롱을 두려워 했다. 그러나 자신의 후궁들로부터 이처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더 수치스러울 것인가!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 이곳에 언급되고 있는 시드기야의 운명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예레미야의 운명과 평행을 이루며 기록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에벳멜렉을 사용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13절) 죽음을 면케하여 주셨으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시드기야는 그를 해할 갈대인에게로 '끌어냄을 입을'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 오늘 말씀 내용이 담긴 스킷으로 수업을 시작하라. 세 명을 뽑아서 각각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 그리고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시드기야 왕(예레미야를 향하여): 선지자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왕을 향하여): 오 왕이시여, 이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조언자를 향하여): 조언자여, 이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오.

조언자(왕을 향하여): 오 왕이시여, 예레미야는 것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 쫓으소서!

(두 번 큰 소리로 더 반복한다)

- 스킷을 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라. 오늘 공부할 말씀 중에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세 번이나 요구했다는 것을 지적하라.

학습인도

- 본문을 읽을 때 특별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 개의 경청 그룹을 만들어야. 각각의 그룹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그룹 1 -- 시드기야 왕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나?; 그룹 2 -- 예레미야의 상황에 대해; 그룹 3 --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의 세력 상황. 렘 37:1-15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리고 각각의 답을 말해보도록 하라.

- 렘 37:6-8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레미야의 최초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경청하도록 하라. 칠판에 반원들의 대답을 기록하라.

- 다시 세 개의 경청 그룹에게 각각 질문하라; 그룹 1 -- 예레미야에 대한 잘못된 혐의; 그룹 2 -- 예레미야의 변호 혹은 알리바이; 그룹 3 -- 예레미야에 대한 판결. 렘 37:11-15절을 소리 내서 읽고 반원들이 답할 수 있도록 하라.

- 렘 37:16-17절에 나오는 시드기야의 두 번째 질문과 18-21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새로운 감금을 경청하도록 하라.

- 렘 38:1-13절을 간략히 요약할 수 있도록 렘 38:14절에 관한 인도자 지침서의 내용을 사용하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라:

- * 그 젊은 지도자들은 반역죄로 예레미야를 처형하기를 원했다.
- * 시드기야 왕은 그들이 예레미야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락했다.
- * 예레미야는 진흙으로 가득찬 버려진 구덩이 속에 갇혔다. "구덩이"에 관한 이해를 돋도록 학습공과의 '보충'을 활용하도록 하라.
- * 한 온유한 외국인이 예레미야를 바로 견져내도록 간청했다.
- *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는 빛이 있는 바깥으로 다시 건짐을 받았다.

8. 렘 38:14-23절을 읽도록 한 뒤, 예레미야가 그가 당한 환란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번복했는지 발견하도록 하라. 시드기야 왕의 유약함과 우유부단함 뒤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가?(38:18-19절을 보라)

적용격려

9. 다음 질문을 이용하여 토론을 유도하라: 사회적 압박과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레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힘든 일이 뒤따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10. 학습공과의 "듣기 싫은 메시지"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라.

[제 12 과]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때 (인도자 지침서)
핵심본문 램 32:1-15	<p>학습 주제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을 주신다</p> <p>탐구 질문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p> <p>교육 목표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인식할 수 있도록</p>

성경주제

배경이해

마침내 바벨론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경고하던 예루살렘 파멸의 시기가 다가왔다. 이것은 시드기야왕 때에 느부갓네살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문해석

갖혔으나 입을 닫지는 않음(32:1-5)

=====32:1

시드기야 제 십 년은 B.C.587 년으로서, 이 연대와 비교해보면 느부갓네살은 B.C.605년 가을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계산된다(25:1; 52:12; 왕하 25:8 참조).

=====32:2

2-5절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37, 38장과 거의 같은 연대에 속한다. 37, 38장에서는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잠시 철수하고 전진해오는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려 가던 때에 예레미야가 체포되었으며, 왕의 관리들 몇 사람에 의해서 적들을 이롭게 한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32:3-5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 이것의 문자적 해석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입은 그의 입과 말하고 시드기야 왕의 눈은 그의 눈을 볼 것이라'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지게 될 것임을 선언한다. 시드기야 왕은 달아나지 못할 것이며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왕하 25:4-7 참조).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 어떤 주석가는 '여호와께서 시드기야를 위하여 간섭할 때까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있게 될 것이라는 다소 보호적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 예언은 시드기야 통치 초기 곧 반바벨론 입장을 노골화하기 이전의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 된다(왕하 24:17, 18 참조). 그러나 여기서 '권고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돌보다'란 의미 외에 '멸하다'란 의미로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어두운 미래, 소망 없는 상황(32:6-15)

=====32:6-7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 본절은 2-5절에 의해 분리되었던 1절과 연결되고 있으며, 7절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된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말미암아, 하나멜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해져 자기 밭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것 같다. 례 25:23-28에는, 근족(近族)끼리는 위기와 곤경을 당할 때 상호간에 서로 무를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마도 하나멜은 이런 율법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기 이전에 사촌간인 예레미야에게 선매권(先賣權)을 주고자 했던 것 같다.

=====32:8

하나멜의 방문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예레미야는 이미 여호와로부터 어떤 확신에 찬 말씀을 받은 바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상사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바로 이 문제로 아나돗으로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을지도 모른다(37:11-14). 그리고 그의 사촌 하나멜은 갈대아인들이 애굽을 치기 위해 철수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격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레미야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32:9

예레미야는 은 십 칠 세겔을 달아 주었는데,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멜이 제공할 밭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한 세겔은 약 11.4g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렇다면 십 칠 세겔은 약 194g 정도 되었을 것이다(창 23:16 참조).

=====32:10

예레미야는 중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입 증서에 도장을 찍고 은을 달아 주었다. 한편 B.C. 5세기 말경, 이집트의 엘레판틴(Elephantine)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경우에 계약서는 파피루스에 기록되고 여러 번 접었으며 그리고 묶어져서 인봉되었다. 그리고 인봉되지 않은 복사본 한 통은 열람용으로 사용되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있었다. 토판에 기록된 공식 계약서가 토판으로 된 봉투에 싸였던 것이다.

=====32:11-12

바룩은 예레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자신은 거의 드러내지 않음으로 좀처럼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가 없었더라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32:13-14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 여기서 '토기'란 것은 옹기 항아리를 가리키는데, 흔히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 같다.

=====32:15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 이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다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의 토지 문서는 대단히 귀한 값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 있는 긴박한 시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역설적인 소망의 메시지라 하겠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하라: 경기가 나쁜 것은 부동산 매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은 왜 미래가 불확실할 때 투자하기를 꺼려하는가?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이제 막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고 그 거래를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함으로 오늘 수업과 연결 시켜라.

학습인도

2. 학습공과 "예레미야의 어려운 상황"에 나오는 주제를 활용하여 간단히 설명하라.

3. 오늘 본문(렘 32:1-15)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세 명을 뽑아서 시드기야 왕, 하나멜,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읽게 하라. 인도자인 당신은 도입 부분(1-2절)과 세 인물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읽도록 하라. 같은 번역본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시드기야 왕의 말은 3-5절, 하나멜의 말은 8절, 예레미야의 말은 6-15절에 나와 있음을 세 명에게 미리 말해주라.

4. 학습공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반원들이 본문을 더욱 주의 깊게 읽도록 주의를 주라. 그리고 다음 질문을 이용하여 반원들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려 갔는지 확인하도록 하라.

* 인기 없는 메시지(3-5절)을 읽은 후, 질문: 왕과 이미 갈등관계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사실을 직언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었는가?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가?

* 독특한 교훈(6-8a)을 읽은 후, 질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는가?

* "하나님의 교훈 위에서 행하기(8b-14)를 읽은 후, 질문: 예레미야의 거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셨는가? "가장 힘든 시기"에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가?

5. 32:16,24-25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 부분과 32:36-4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 부분을 읽음으로써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라. 질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떤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셨는가?

적용격려

6. 질문:

- * 예레미야는 그가 샀던 밭을 일구고 그 소산물을 맛보았는가?(아마도 아닐 것이다)
- *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투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
- *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도우셨는가?

[제 13 과]	새 날이 됨 (인도자 지침서)
핵심본문 렘 31:27-34	<p>학습 주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밀접하고 개인적인, 헌신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p> <p>탐구 질문 어떻게 인생이 새로워 질 수 있는가?</p> <p>교육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요약한다.</p>

성경주제

배경이해

이과는 암담하게만 보이던 유다 민족의 장래를 등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는 때에 여호와께서 가운데 우뚝 서셔서 손을 벌리시고 여호와의 품에 다시 안기라고 초대하는 호소이기도 하다. 여호와께서 마치 부모처럼 자식을 징계하였지만 자식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 다시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것은 유다 민족만 아니고 후에는 모든 족속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한 민족만을 위한 닫혀진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열린 약속이다.

본문해석

새 날이 다가옴(31:27-30)

=====31:27

이는 여호와께서 사람과 가축을 번성케 하실 것임으말한다. 공동 번역은 이를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없이 씨를 뿌려 농사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고 쉽게 번역하였는데, 결국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창 22:17)에 대한 확증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31:28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평범한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 교훈을 주셨을 때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이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쇼케드'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라고 대답할 때에는 내가 '샤케드'를 보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받아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샤케드'하겠다고 하신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지킨다'는 뜻으로 새겨서 일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31:29,30

여기서는 범죄에 따르는 형벌이 각 개인의 책임으로 주어지게 됨을 강조한다. 이는 아마, 조상들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포로민들의 잘못을 염두에 둔 말씀인 듯하다.

아비가 신 포도를...아들들의 이가 시다 - 이 말은 당시 유행하던 속담인 것 같으며, 어쩌면 출 20:5, 6에서 착안되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일관되게 교훈한다(신 24:16). 에스겔도 이와 유사한 언급을하고 있다(겔 18:2-4).

세 언약이 주어짐(31:31-34)

=====31:31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 구역에서 '새 언약'이 언급되고 있는 곳은 오직 이곳뿐이다. 비록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본절로부터 34절까지는 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며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심오한 부분에 해당되며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심오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훗날 쿠란(Qumran) 공동체는 여기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새 언약의 사람들로 이해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은 강력한 윤법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서 모세 언약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분명 본문은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이 피언약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다(눅 22:20; 고전 11:25; 히 8:8-9:28).

=====31:32

이 언약은...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 새 언약의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간에 시작된 언약이 제시되고 있다(출 19:1-24:11). 언약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는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곧 언약에 규정된 조항과 약속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 문제에 달려 있었다

(11:1-8). 이러한 윤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과 언약에 명시된 저주 조항의 가동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반면에 순종은 언약의 축복을 가져왔다. 그러나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약 규정 조항에 순종하는 데 언제나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강력한 구원의 능력으로써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다

=====31:33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 이제 여호와는 백성들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선언하신다. 즉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할 것인 바 이는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한다(롬8:1-11). 한편 옛 언약은 돌 위, 혹은 책에 기록되었었다 (출24:7;31:18;신 4:13). 그리고 기록될 장소로서의 '마음'이란 표현은 17:1에서는 죄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다.

=====31:34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앓이니라 – 여기에는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제사장이나 선지자 등이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적 중보가 필요없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를 알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사 54:13에도 나온다.

이 말은 신약의 성도가 믿음의 선배로부터 전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체험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외부의 지시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깊고 친밀한 인격적 앓이라는 대단히 심오한 개념을 담고 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삶과의 연결

1. 이번 수업이 새 언약에 관한 주제인 만큼, 다음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하라.

- * “언약”에 대한 정의 혹은 동의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도자는 사전을 가져오거나 미리 복사를 해서 참조하도록 하라)
- * 우리 일상 생활의 언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결혼, 아파트 매매, 사업 계약)
- * 누가 사인을 해야 하는가?
- * 결혼 계약, 아파트 매매, 혹은 사업 계약을 지켜주는 “인,” 혹은 진심은 무엇인가?

학습인도

2. 큰 차트 종이에 가운데 선을 긋고 한 쪽은 “옛 언약” 한쪽은 “새 언약”이라고 쓰자. 반원들이 옛 언약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말해보도록 하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하라.

- * 누구와 함께 만들어진 것인가?(창 15:4-6, 18)
- * 그 언약의 표시는 무엇이었는가?(kd 17:9-10)
- * 모세는 언제 이 언약을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확장시켰는가?(출 24:3-8)
- *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과 새롭게 한 것은 언제인가?(수 24:19-22)
- *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렘 32:32-35)

"옛 언약"이라고 제목이 붙은 곳에 반원들의 대답들을 기록하라.

3. 한 사람이 렘 31:27-28절을 소리내서 읽을 때, 누가 새 언약에 포함되는지 주의해서 듣도록 하라.

학습공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를 참조하도록 하라. 질문, 누가 새 언약의 조항들을

기록하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반원들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또 하나의 크게 다른 점을 주의해서 듣게 하고 아까 읽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렘 31:29-30절을 읽도록 하라. 인도자 지침서를 활용하여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설명하도록 하라. 우리는 자주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을 지적하라. 질문, 우리가 불끈 화가 날 때, 우리가 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될 때, 사업을 정직하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욕망에 싸이게 될 때 누구를 탓하는가? "새 언약"이라고 써어진 곳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쳐라.

4. 새 언약의 조항들에서 1인칭과 3인칭으로 시작하는 구절들을 찾기 위해 반원들이 렘 31:33-34절을 읽도록 하라. 학습공과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하라.

적용격려

5.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이 적용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신과 나는 어떻게 이 새 언약에 가입하게 되었는가?(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히 9:15절, 10:8-10절을 각각 읽도록 하라)

6. 주의 만찬을 설명하라. 마 26:26-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라.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서약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상기시켜라.

7. "나 같은 죄인 살리신(찬 405)" 1절을 부름으로써 수업을 마치도록 하라.